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2년 11월호

# 함께 가는 길

# 1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함 \*게 \*가 \*는 \*길 \*

|             |                         |        |
|-------------|-------------------------|--------|
| 자<br>임<br>세 | 일하며 생각하며 / 2            |        |
|             | 변혁을 꿈꾸는 바닥정치인의 역할과 임무   | 김경태    |
|             | 만나보았습니다 / 4             |        |
|             | 서초동 꽃동네 놀이방을 찾아         | 이정희    |
|             | 교사조직 / 9                |        |
|             | 탁아소 실태조사 분석결과           | 교사조직분과 |
|             | 기획. 대선투쟁을 준비한다 (2) / 24 |        |
|             | 탁아활동가로서 우리는 대선시기에 !     | 대선대책본부 |
|             | 특집 / 40                 |        |
|             | 민주당, 어떻게 볼 것인가          | 박충렬    |
|             | 교사가 쓴 동화 / 46           |        |
|             | 까치와 까마귀 (마지막 회)         | 김난희    |
|             | 활동총괄 / 49               |        |
|             | 1,2차 정치 토론회             |        |
|             | 탁아소 별곡 / 50             |        |
|             |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나          | 김명숙    |
|             | 소식과 소식 / 52             |        |
|             | 우리들의 목소리 / 58           |        |
|             | 문화란 / 62                |        |
|             | 편집부에서 / 68              |        |

탁아소 백과 / 3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 44 알아봅시다 / 45  
지택언 벼룩시장 / 67

\*\*\* 표지 사진

지난 11월 11일 본 회 사무실에서 있었던 제 2차 교사정치토론회  
토론 장면

## 변혁을 꿈꾸는 바닥정치인의 역할과 임무

김경태 (본 회 지도위원, 북부 어린이 사랑방)

겨울을 재촉하는 듯 불어대는 11월의 싸늘한 바람만큼 우리의 마음을 스산하고도 분주하게 만드는 바람은 없을 것이다. 겨울 준비를 든든히 해야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세상이치를 아는 까닭이다.

87년 대선 이후 6년만의 대선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중립내각이 들어섰으니 어찌느니 하지만 민주정부수립과 개혁을 갈망하는 우리모두의 뜨거운 갈망이 뜻대로 꽃피게 하는 건 아무래도 국민손에 달린 일이다. 87년 대통령선거의 뼈아픈 경험아래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중에는 물론 부정적인 변화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회 각계 각층에서 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갈망이 폭넓게 확산되었다는 것은 얼마전 MBC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우리 탁아운동 역시 아동복지법 개정싸움에서 현재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싸움에 이르기까지 실로 눈부시게(?) 싸워오지 않았던가.

이제 각 부문 부문에서 싸워왔던 그 모든 운동역량이 단결하여 심판의 그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탁아활동가 우리 모두는 변혁을 꿈꾸는 바닥정치인으로 맡은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민자 선전활동은 물론이려니와 그동안 게을리 해왔던 대중의 성향파악에서부터 공정선거 감시운동, 구체적인 득표행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이미 관조직, 사조직등 온갖 물리력, 금력(金力), 권력 등을 총동원하는

시점이 아니던가.

잠재된 우리의 모든 조직역량을 반민자 대열에 굳건이 서게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탁아운동과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당당히 싸워야 할 것이다. 올바른 탁아제도, 올바른 탁아정책을 위한 과제앞에서는 무조건 야당이라고 다 여성편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여성이 단결해서 여성의 과제를 성취시켜야 한다.

셋째는 지역단위에서나 전국단위에서 굳건이 연대하고 단결하자.

후보전술이나 방법상의 차이를 떠나 서로 단결하고 연대하면서 민주진영의 굳건한 힘과 지도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민주정부 수립의 벽찬 그날을 위해 단결하자. 투쟁하자!

## 탁아소 백과

### 모유에 대한 오해 여섯가지

8월1일 '세계모유수유의 날'을 계기로 국내에서 엄마젖 먹이기운동이 힘차게 일고 있는 가운데 연대간호대 최연순 교수는 산모들이 갖는 '모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여섯가지'를 지적, 산모들의 바른 이해를 촉구했다. 여섯가지 오해는 ①유방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모유수유가 어렵다고 느낀다 ②모유수유시 음식에 제한이 있다고 여긴다 (단지 모유가 잘 분비되도록 균형있는 식사를 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면 된다) ③모유수유시 유방모양이 변한다고 생각한다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모유수유 때문이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생체변화 때문이다) ④ 모유를 먹이면서 동시에 직

업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모유수유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⑤ 유두가 함몰됐거나 편편하면 모유를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출산전부터 연습했을 경우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⑥가족중에 모유수유한 사람이 없는 경우 모유수유를 기피한다는 등이다. 아기에게 모유는 소화가 잘되고 배가 더부룩하지 않으며 설사, 변비를 일으키지 않고 얼굴과 입, 턱뼈, 잇몸, 치아가 자연스럽게 발달되도록 한다. 현재 국내 모유수유율은 21.4%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8/8 새건강신문>

**만나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철거 위협속에 이런 활동  
벌어요. - 서초동 꽃동네 놀이방

이정희 (편집부)

지난 9월 24일 태풍 테드가 몰아치는 비바람속에서 위풍도 당당한 동양최대의 법원과 검찰 청사가 굽어보는 서초동 2천300여세대의 비닐하우스촌이 4천500여명의 전경, 백골단, 철거깡패, 서울시와 각 구청의 직원들에 의해 완전히 철거되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이렇게 아직도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가진 자들의 투기의 희생자들인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과 또 그들이 밀리고 밀려 이루어진 비닐 하우스촌 주민들은 아무런 근본대책없이 철거, 혹은 철거위험을 당하며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동 꽃동네 놀이방 (공부방)은 이런 지역에 위치하면서 아이들의 꿈과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위해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데 열심으로 얼마 전 11월 1일 일요일에는 서초동 꽃동네 꽃마을 군부대 앞 자치위원회 주최로 '생존권 쟁취를 위한 마을 대동제'를 함께 하기도 했다.

이번 '만나보았습니다'에서는 서초동의 지역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꽃동네 놀이방을 찾아보았다. 전화로 위치를 전해들은 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조금은 걱정되기도 했는데 이 지역의 주민의 자량이라고들 말하는게 실감이 날 정도로 '꽃동네 놀이방'을 모르는 이들이 없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너무도 쉽게 다른 집들과 구분이 잘 안되는 작은 문에 쇠워진 작은 문에 쇠여진 꽃동네 놀이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무척 작았지만 (4평이라 함) 자료나 장난감이 빈틈도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정희:안녕하세요? 얼마전 신문에 서초동 철거기사가 났을때 이곳 놀이방도 철거된 것일까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구성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추측을 한

것 같은데 이 곳 서초동 비닐 하우스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또 이 지역이 형성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혜민이모: 얼마전에 철거된 지역은 법원과 검찰청사 앞 두 마을입니다. 그곳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관(서초구)에서도 철거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자세한 것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초동에는 지금은 12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자치위원회를 두고 있고 꽃동네 놀이방은 그 12마을 중 하나인 군부대 앞 자치위원회에 속해 있어요. 또 놀이방, 공부방은 유일하게 이곳만 있어요.

서초동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된 것은 80년대 들어서인데 사당동, 상계동, 목동 등 재개발 구역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이 지역에 임시 거주촌을 형성하다가 5공말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단지로 형성되었어요. 80년 중동건설의 침체를 국내에서 만회하고자 시작된 재개발은 세입자들의 생존과 존엄,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개발 이익이 공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 투기꾼에게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영세가옥주나 세입자들에게 몇 톨의 기만적인 이주비만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내쫓긴 대다수 철거민들과 소득의 2배 이상으로 상승하는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서초동 비닐하우스촌으로 몰리게 된거죠.

정희:그럼 이곳은 재개발 지구와는 또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겠네요. 어떤 점을 들 수 있습니까?

혜민이모: 이곳은 여러 철거지역중에서도 최악의 형태이지요. 무허가나 재개발 지구는 그래도 '주거'는 인정한다는 말인데 이곳은 재개발지역도 아니고 무허가도 못되는 셈이라 아예 주소이전이나 재반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이곳 주민들도 산동네 철거를 몇 차례나 당했던 경험이 있고 막바지까지 치달려온 사람들이죠. 그래서인지 '자치위원회'도 쉽게 만들어졌어요. 보통 이런조직은 재개발 고시가 떨어져야 생기곤 하는데 우리지역은 비닐하우스의 특성상 그렇지 않았어요. 즉 주민들이 거의 '세입자대책위'라는 조직경험이 있어서 철거가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뭉쳐있어야 싸울 수 있다는 조직의 필요성을 이미 갖고 있어 산동네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졌어요. 이곳 군부대 앞 자치위원회는 88년 8월에 생겼습니다.

정희: 지난 11월 1일에는 생존권쟁취를 위한 마을 대동제를 치뤘는데 해방혼례제, 노래공연, 주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을 이루었다는 얘기

를 들었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해민이모:** 얼마전 법원,청사 앞 지역의 맥폴리는 철거상황들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곳은 그동안 15차례의 크고 작은 방화사건과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법원과 검찰청사가 인접해있는 곳이었고, 그 일대 땅을 소유하는 지주들이 정계,제계의 거물급과 변호사등으로 되어 있어 계속적인 철거압력을 받아와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받아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한계가 분명하겠지만 이같은 사회적 여론을 통해 지역상황을 호조건으로 뒤바꿀수 있었는데도 맥없이 쓰러졌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지도부는 정부의 회유와 협박속에 자신들의 도덕성을 지켜내고 건강하게 주민을 지도해낸 것이 아니라 분열공작의 빌미가 되는 지역내 집을 쪼개고 늘리고,짓는 등의 행위를 조장하고 그 세력들을 옹호하고 편승해 관에게 발목을 잡히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실태조사를 확실한 대책함의 없이 관에게 넘겨줘 주민을 동요하게 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투쟁성을 감아먹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주와의 협상태이블도 조직적이 아닌 개별화시켰으며 불법주택조합을 결성하며 (이 주택조합결성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관에서 특별로 인정해주었다고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들과의 분열을 획책하는 등 분열에 분열을 가하는 촉매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역주민 역시 연대세력을 배척하고 집을 쪼개고 늘리는 데서 얻는 알뜰한 이익에만 매몰되 이런 지도부를 수수방관하다 결국 단결하여 싸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 지역주민간에도 갖가지 시비가 오고 갔고 결국 우리 지역은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교훈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치회조직의 두 기둥인 건강한 지도부의 지도력과 항상 깨어있는 주민들의 투쟁성이 함께하여 강고한 단결의 기치로 모아질 때 우리의 생존권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지역주민이 다시금 집단적으로 확인하고 그동안 매도되어온 비닐 하우스촌의 실태와 올바른 주거정책을 요구해 왔던 우리마을의 도덕성을 유감없이 알려내고자 이번 마을 대동제가 마련되게 된것입니다.

**정희:** 현재 철거싸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해민이모:** 두가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철거민 자체에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법정영세민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데,영세민은 말그대로 생계자체



(지난 11월1일에 있었던 생존권정취를 위한 마을 대동제에서)

를 위협받는 사람이고, 철거민은 철거로 인한 주택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것은 분리대책일 뿐 철거민에 대한 근본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거민의 영세민화에 반대하며 철거민 자체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할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문제는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철거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야 일 이백만원 우습게 알겠지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자기재산 다 정리해서 들어온 것이라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며, 이는 지주가 땅투기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희:**이곳 놀이방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마을 상황에 대처하러 아이들을 돌보라 정말 눈코 뜰새 없을 것 같습니다. 서초동 놀이방과 지역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해민이모:** 하나부터 열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합니다. 전 주민이 고민하는게 철

거문제이고 저희도 주민이니까요. 또 놀이방, 공부방 활동을 통해 신뢰가 매우 높아요. 자치회 활동도 같이하고 매주 임원진 회의가 있는데 초애이모가 총무예요. 마을 전반적인 얘기, 그때 그때 발생한 사건처리도 하고 부녀선봉대에도 같이 결합하고요.

정희: 놀이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역상황은 어떻게 진행될것 같습니까? 또 그 대응은요?

해민이모: 놀이방은 현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자모회나 자활들과 상의해봐야 하는데 철거가 와도 일일탁아, 공부방 형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자원활동가들이 있으니까요. 지역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계속되겠고 그 이후 문제는 그때 가서 고민해봐야겠죠.

지역상황은 철거가 내년 3월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법원단지앞이 마을이 커서 상당히 관에서도 주력을 했는데 어치구니없게도 무너져버려 관에서는 다른 마을 철거에 별어려움이 없을 걸로 여기는 것 같아요. 대응이라면 다른 철거지역과 비슷합니다. 주민단결을 중점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당장 대선을 앞에 두고 있으니 대선활동(교육)도 하면서 철거를 대비해야죠. 어려운 점은 관에서 주거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다른지역들이 모범적 사례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영구임대주택과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이라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때까지 싸워야죠. 길바닥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죽기살기로 싸워야죠 뭐.

정희: 바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요구가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서초동 법원단지 앞은 철거된 후 두달도 채 못된 지금 땅값이 평당 3천만원이었던것이 6천만원으로 뛰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군부대 앞도 대법원이 들어서게 되면 평당 1억원을 웃돌게 될거라 한다. 서초동 꽃마음은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가진자들의 투기에 따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이러한 투기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또 다른 비닐하우스촌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철거없는 세상을 안겨주기위해 오늘도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꽃동네 놀이방 세 이모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대선에서는 꼭 승리해야 할 텐데..

## 교사조직

# 지택연 소속 탁아소 실태 조사 분석결과

교사조직분과

## I. 조사의 목적과 방법

### 1. 목적

이 설문조사는 각지역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탁아소들의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탁아운동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을 밝히고 이후 탁아법 개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 2. 조사 방법

- 1) 조사 대상자: 지택연 소속의 각 탁아소 46개
- 2) 지역: 서울, 경인, 지방
- 3) 조사 방법: 설문지를 통한 전수 조사
- 4) 분석 방법: 수립된 자료는 빈도 분포와 백분율을 토대로 집계

## II. 실태조사 분석 내용

### □□ 전반적인 운영 실태 □□

#### # 설립 년도 #

1. 탁아소의 설립년도에 대해 89년도에 가장 많이 생겨났으며 87 ~ 90년까지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는 대중운동의 활성화로 인한 탁아운동의 양적 발전으로도 파악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탁아요구의 증가가 탁아소 양적증대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설 탁아소가 생겨나기 보다는 오히려 폐원하는 사례들도 왕당 접할 수 있다. 이것은 운영난, 교사간의 여러 문제, 영유아 보육법 상의 개설의 까다로움 등으로 새로 만들어지기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고 누적된 운영난, 활동가의 수급으로 인한 원인등으로 비영리 민간 탁아소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 설립과정 및 설립인

2. 설립인력 설립과정 등에 대해 탁아소 설립과정과 설립인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종교단체의 주도가 압도적이었지만 탁아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에는(87~90) 단체와 팀의 공동 설립, 단일 준비팀 구성으로의 설립이 많아졌다. 개인이 설립한 곳도 13%나 되었고 단체가 설립한 곳도 15%를 나타냈다.

공동 설립의 과정은 자본과 공간의 문제를 지역 대중사업의 일환으로 단체가 해결하고 탁운의 전망을 가진 활동가가 결합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는 지역주민 사업의 일환으로 낮에 비는 공간 활용의 차원으로의 탁아소 설립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단일 탁아소 준비팀의 경우는 독자적인 탁운의 전망과 함께 공간의 설치, 운영의 모든 부분을 준비팀이 담보하면서 운동의 위상 및 전망까지 팀의 합의에 의해 나오는 사업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활동가들의 필요에 의해서 영아탁아가 생겨난 것도 특이하게 나타난다.

#### # 설립 목적 #

3. 탁아소의 설립 목적은 가장 많은 것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도움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이고 세번째가 지역운동의 활성화이다.

설립주체에 따라 설립목적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것은 달리 해석하면 탁운의 목표, 주제등을 정립하는데의 논란의 여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설립목적이 곧 운동의 목적으로 일맥 상통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의 다양한 설립목적이 각 탁아소의 고유한 운동의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과학적 탁운론의 정립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확실한 탁운의 방향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 # 탁아소 유형 #

4. 대상 부모의 계급계층별로 보면 전국추산은 빈민, 노동탁아가 37%로 가장 많고, 다음이 34.8%인 빈민탁아, 32.6%로 노동탁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은 빈민탁아가 제일 많고 경인 지역은 노동탁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 계층별로 보면 탁아운동의 자모대중은 노동자, 빈민이 대다수였고 이것은 비영리 민탁의 운동성격 및 주체를 나타내주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별로 보면 종일탁아가 75.5%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종일탁아의 혼합형태는 8.7%인 4곳에 불과했고 지방은 2곳으로 나타났다. 지탁연 회원 탁아소 대부분이 부모의 노동시간을 고려해 종일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었다.

소재별로 보면 91.1%인 41곳이 민간탁아로 나타났고 응답자중 7곳이 가정탁아, 시설탁아 1곳이 서울지역에 있었다.

탁아소 유형을 정리하면 회원 탁아소 다수가 부모는 노동자, 빈민이 다수이고 종일제 탁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형태는 대부분의 민간탁아라고 볼 수 있다.

#### #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연관 여부 #

5. 탁아소가 사회단체나 종교 단체와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연관이 없다고 34.8%, 있다는 26%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서울, 경인지역이 지방보다 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단체의 본포는 교회가 26.0%, 여성 8.7%, 불교단체가 4.3%, 성공회, 카톨릭이 각각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연관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교회와의 연관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 # 운영 체계 #

6.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교사협의 체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운영위원회, 세번째가 후원회였고 마지막으로 이사회운영이나 집행위 운영도 있었다. 이는 교사간의 상하 관계가 아닌 논의하고 합의하는 민주적인 운영체계가 조직내

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의 체계는 소수 이지만 현장 교사의 의사가 묵살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장교사는 단순한 교육의 임무 뿐만아니라 탁아소 운영까지 고민해야 하는 운영자의 임무도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주거 형태 #

7. 소유 형태에 대해서는 46.6%로 월세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세로 23.9%, 자가소유는 19.6%나 되었다. 또한 소속단체 건물이 10.9%, 무허가도 6.5%로 나타났다.

월세 부담분은 월 20 ~ 30만원이 13%, 10만원이 10.9%, 10 ~ 20만원이 8.7%이고 40만원 이상도 6.5%나 되었다. 그리고 전세부담분은 1000만원 정도가 26.0%, 500만원이 10.9%이고 500만원 이하와 2000만원 이상이 각각 8.7%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탁아소의 소유형태는 매우 불안정한 월세, 전세가 60%로 다수이고 이는 운영비중 월세금이나 전세 인상금으로 꽤 많이 지출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탁아소를 새로 만드는 경우에도 바로 이 공간마련기금의 문제가 가장 힘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속한 정부의 시설비 지원만이 근본 토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8. 탁아소의 대지면적과 식건평수는 10 ~ 20평 정도가 34.8%, 20 ~ 30평이 21.7%, 10 ~ 15평이 15.2%의 순으로 나타났고 10평이하도 서울지역에서 3곳으로 파악되었다.

20명 정도의 아동이 10 ~ 20평 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쾌적한 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문항이며 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

#### 9. 내부배치에 대해서는 생략

10. 탁아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식사나 간식을 준비하면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은 77.9%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시설은 28.3%이다. 대부분의 시설이 아동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직도 28.3%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식사준비나 간식준비시 최소 교사 한명 정도가 아동과 분리되고 있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알 수 있다.

#### # 서류 소유 #

11. 탁아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입학원서와 현금 출납부가 대부분의 탁아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사회회의록, 부모회의록, 자원활동가 일지가 그다음을 차지했고 원아 납입금 수납기록부, 출석부, 부모약속서, 영수증철, 생활기록부가 세번째로 나타났다.

탁아소에 비치해야 할 서류 항목이 32개 정도인데 앞에서 열거한 서류는 거의 탁아소에 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적지만 제증명 발급대장을 제외하고는 고루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관한 모든 자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서류작성을 교사들이 해야하는 것을 감안하면 교사의 많은 업무량 또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무자동화가 각 탁아소에도 하루빨리 보급되어 교사들의 잡무가 줄어들어야 하겠다.

#### # 미인가 보육시설 경과 조치에 대해 #

12. 신고여부측 알아본 결과 77.7% 정도가 신고를 하였고 신고거부가 17.4%, 반려가 10.9%로 나타났다. 반려의 경우 지방이 19.6%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경인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려의 원인은 무허가와 안전대책미비가 대부분이다.

신고시 몇몇 탁아소 가정탁아의 비육에 대해서는 거의 동등했고 신고시 문제가 된것은 역시 무허가가 대부분이고 거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유형별 통계에서는 대부분이 민간탁아였지만 영보법에 입각한 신고의 상황과 차이는 실제의 상황과 법률상의 시설인정내용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 # 아동수 #

13. 현재 탁아소의 아동수는 10 ~ 15명이 46.6%로 가장 많고 15 ~ 20명이 28.3%이고 20 ~ 25명, 25 ~ 30, 5 ~ 10명이 동일하게 10.9%로 나타났으며 5명이하는 2.2%로 나타났다.

아동수에 있어서 계절 차이는 5 ~ 10명이상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보육아동수는 포괄적으로 10 ~ 20명정도이고 계절별 차이는 약 보육아동수의 30 ~ 40%에 달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4. 탁아소의 바람직한 정원에 비해 현재의 정원은 적다가 54.3%로 절반이 넘었고 많다가 23.9%, 동일하다가 19.6%로 나타났다.

적다의 이유는 홍보 부족이 23.9%, 인근의 다른 탁아소가 많은 이유가 21.7%, 시설이 좋지 않아서가 17.4%, 입소 조건의 까다로움이 15.2%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 확보의 어려움, 비싼 탁아료, 주민들의 민간탁아소의 선입견이 4.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홍보부족과 인근 탁아소의 문제가 가장 큰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탁아의 양적 증대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며 시설 미비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지원과 재정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다의 이유는 인근 개설된 탁아소가 없다와 탁아소 운영난 해결을 위해서가 17.4%로 동일하고 많은 아이들이 탁아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15.2%, 저렴한 탁아비로 주민들의 높은 요구가 4.3%이고 시설이 좋은 것이 2.2%에 불과했다.

#### # 탁아 시간 #

15. 1일 탁아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89.1%에 달하는 탁아소가 11시간~12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하는 곳이 없었는데 경인, 지방은 각각 2개씩의 탁아소가 13시간이라 답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 탁아 시간 | 10시간 | 11시간  | 12시간  | 13시간 |
|-------|------|-------|-------|------|
| 비 율   | 2.2% | 47.8% | 41.3% | 8.7% |

16. 탁아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100%가 부모의 노동시간이라고 답했다. 결국 탁아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부모들의 노동시간이 긴데서 연유한다고 보여진다. '8시간 노동'이 상식화 되어 있는 현재의 수준에서 아직도 많은 수의 노동자(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들이 그보다 더 긴 시간동안 일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동 조건은 개선되어야 함을 그리고 개선해 나갈 주체가 부모들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탁아 시간이 식제로 지켜지느냐의 질문에는 89.1%가 잘 지켜진다고 응답했으며 6.5%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탁아 시간이 정해진 기준이 부모의 노동시간인 점을 고려할때 탁아 시

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노동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에 의한 것이 많을 가능성 때문이다.

바람직한 탁아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이 26%, 12시간이 23.9%, 9시간 10시간이 각각 10.8%, 11~12시간 이상이 6.5%, 무응답이 17.4%로 나타났다. 이렇게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이 큰 차이 없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탁아시간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부족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바람직한 탁아시간을 정하는 기준으로 50%가 부모의 노동시간 고려, 26%가 교사의 재충전, 15%가 아동교육을 고려해서 4.3%가 시설여건을 고려해서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탁아시간에 대해서는 교사들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야할 것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 탁아 연령 #

17. 현재의 탁아 연령은 3세 ~ 6세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1,2세를 수용하는 곳이 28.3%로 나타나 영아탁아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지만 많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졸업연령은 6세가 37%, 5세가 30.4%, 7세가 17.4%로 나타나 현재 탁아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탁아연령이 5,6세 정도임을 알 수 있었는데 졸업이후에도 유치원이 끝난 이후 시간동안 탁아소에 보내길 원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때 공부방이나 유치탁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필요는 지방의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 아직 공부방이 많지 않아 유치원에 갔다와 이후 시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7세까지도 탁아소에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18. 탁아연령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65.2%가 아동의 집단 생활에의 적응을 고려, 43.5%가 시설과 인력을 고려, 28.3%가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로 나타났다.

19. 탁아소의 탁아 연령차에 대한 응답은 60.9%가 크다, 37%가 적당하다, 8.7%가 작다고 대답했는데 경인 지역에서 지역내 역분에 의해 탁아연령을 정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탁아연령차가 크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본다.

탁아연령차에 따르는 문제로 교사, 교육, 시설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었는데 서울의 경우 교사의 문제가, 지방의 경우 시설의 문제가 좀 더 많이 나타났

다.

### # 탁 아 비 #

20. 탁아비는 유아탁아가 4만원에서 7만원까지 다양했다. 그중에서 59.9%가 4만원~5만 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4만원 이하의 경우 서울에 단한곳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지방의 탁아비가 서울, 경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영아 탁아의 경우 10만원이 가장 많았는데 서울의 경우는 모두 10만원 이상이었고 지방의 경우는 5만 5천, 6만 5천원인 경우도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탁아비의 액수가 92년 3월에 조사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가 앞으로 올릴 예정이라 응답했기에 지금은 좀더 높아 졌으리라 본다.

21. 탁아비 외에 별도로 걷는 것이 있는가에는 65.2%가 있다고 했지만 그종류가 난방비, 입학금등이 대부분으로 5,000원 ~ 10,000원선이었다. 지방의 경우는 탁아비가 낮음으로 인해 간식비를 따로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22. 탁아비가 부모에게 주는 부담은 58.7%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 21.7%가 부담이 크다, 10.9%가 부담이 작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3. 탁아비가 탁아소 운영면에 있어서는 95.7%가 부족하다고 대부분이었으며 적당하다고 많다가 각각 1곳이 있었다.

24. 현재 탁아비의 인상, 인하에 대해서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54.3%, 현재 수준이면 됐다가 32.6%, 인하되어야 한다고 13%로 나타났다.

인상되어야 할 이유는 아동교육의 질 향상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으며 시설확장과 교사 처우개선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설확장이나 교사 처우개선보다 아동교육의 내용 향상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것은 현재 아동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절실한 고민의 반영이라 생각 한다.

인하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많았지만 지역 주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대부분이 응답했다. 이는 아직도 탁아비가 부담스러워서 탁아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함을 나타내 준다.

25. 탁아소 운영에 있어서 탁아비, 정부지원, 후원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                         |       |
|-------------------------|-------|
| 부모 탁아비에 50%이하를 의존하는 경우가 | 17.6% |
| 50 ~ 70%                | 23.9% |
| 70 ~ 90%                | 39.1% |

90 ~ 100%

21.7%로 나타났다

후원비에 50%이상 의존하고 있는 탁아소는 8.0%이고 50%미만은 78.3%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탁아비만 가지고는 탁아소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정부지원을 획득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후원은 그동안 탁아소 운영에 큰 힘이 되어주었으며 재정적 도움뿐만아니라 탁아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부분 이었다. 현금, 현물등의 재정적 후원 뿐만 아니라 자원활동가들의 적극적인 활동 또한 큰 몫을 해냈음을 알수 있다.

### # 재정 관리와 운영 #

26. 탁아소 재정 관리는 대표1인이 하는 경우는 21.7%로 나타났고 78.4%가 실무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응답했으며 경인지역에서 1곳이 실무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탁아소의 재정 문제를 특정한 개인보다는 모든 교사가 공동으로 운영, 책임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일반 민간 탁아소와의 차이점이기도 할것이다.

27. 바깥직하다고 생각하는 재정 운영 형태는

부모회와의 관계에서는 1곳을 제외한 97.9%가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감 형성을 위한 것이라 본다.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공동 관리가 85.4%로 가장 많았으며 6.3%인 3곳이 부모회를 운영 주체로 설정하고 있는데 부모들의 유동성을 바라볼때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경인지역의 한 곳은 1인 단독 관리도 있었다.

28. 재정 운영에 있어서 현재 부모회의 참여 정도는 회지나 소식지를 통해 집행후에 보고하는 탁아소가 68.8%로 가장 많았고, 부모회가 관여 않는 곳이 18.8%. 반면 예산작성부터 부모회가 참여하는 곳도 6.3%나 있었다.

29.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95.7%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탁아소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있었다. 그리고 겪지 않는 곳이 4.3%에 불과했다.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수익활동을 벌인적이 있는가에 대해 87.2%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일찻집, 주점이 74.5%, 후원자 물색이 59.6%, 물품 판매가 51.1%, 헌옷바자가 4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한가지

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여러형태의 수익사업을 한 탁아소에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익사업을 벌인 주체는 부모회와 교사가 공동으로 벌인 경우가 74.5%, 교사가 벌인 경우가 12.8%, 교사와 후원단체가 10.6%로 나타나 부모회의 적극적 참여를 알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도움 뿐만 아니라 부모회의 활성화에도 공동의 수익사업이 작용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30. 탁아소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87.0%가 정부 보조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후원 활성화가 50.0%, 다음으로 수익사업 전개, 부모회를 중심으로한 자치구조로 이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의 절대적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탁아정책에 대한 불신과 일관되지 못한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

31. 92년 탁아소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 보조의 내용은 시설비보조 및 운영비 보조가 43.5%로 가장 많은데 이는 전.월세로 인한 재정난등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탁아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39.1%가 인건비보조인데 현재 탁아 교사들의 처우개선의 시급함과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부지 확보, 교재 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및 간식비의 보조, 교사의 의료보험 순으로 들고있다.

32. 92년 탁아소 인건비나 계획에 대해서는 철거로 인한 이사문제와 재정 확보가 각각 34.8%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 문제는 개 탁아소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며 법개정과 지원 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그리고 타 유치반과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탁아소가 8.7%로 나타났는데 이는 체계적인 탁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의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외에 지역선택, 공동후원회, 지역연대, 공간분리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의 적극적 활동속에서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 본다.

## ☐☐ 부모관련조사 ☐☐

1. 부모회(자모회) 회비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라고 응답한 곳이 전체중 95.7%를 차지했고 없다라고 대답한곳은 4.3%에 불과했다.

회비의 액수에 대하여는 1,000원 이상에서 2,000원정도 받는 곳이 54.4%로 제

일 많았고 1,000원 미만이 21.7%, 2,000원 이상에서 3,000원 받는곳이 19.6%, 무응답이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탁연 소속 탁아소 거의가 부모회의 자치적 운영을 위해 부모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부모회비를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회비의 용도에 대하여는 탁아소 행사비 보조가 78.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친목도모가 58.7%, 탁아소 시설 보조가 34.8%, 부모회 사업자금 마련이 2.8%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때 탁아소의 어려운 재정으로는 아동급식비등 탁아소 자체를 운영하는데 겨우 그쳐 탁아소 행사비등은 부모회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부모회가 주관하여 행사를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부모회가 주관하여 행사를 한적이 있는 곳이 68.6%였고 그렇지 않은곳도 32.6%로 나타났다.

행사내용은 일일 찾집, 일일주점이 58.7%, 현웃바자회가 34.8%, 공동부모회가 30.4%, 타단체의 탁아소 행사 참여가 26.1%, 야유회와 친목제가 각각 13.0%, 공동 구매가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회 주관의 행사는 크게 두가지, 즉 탁아소의 어려운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성격과 타 탁아소와의 연대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회 자체내의 친목 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 구매등도 간간히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부모들에게 탁아 재정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89.1%가 부모들에게 탁아재정을 공개하고 있었고 10.9%가 재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공개는 하는 이유는 97.6%가 부모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라고 대답했고 불필요한 분쟁 방지가 7.3%, 후원의 활성화가 4.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는 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들의 의존도가 높아질까봐가 60.0%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후원에 의한 탁아소 운영을 보고 의존도가 높아질까봐 우려하는 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기본적으로 탁아소에 대한 부모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공개하여 부모, 교사가 함께 의논하며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보겠다.

4. 아동의 가정 방문에 대하여는 80.4%가 가정방문을 하고 있었고, 23.9%가 가정 방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가정방문을 하는 횟수는 1년에 한번 정도하는 곳이 전체의 72.9%로 가장 많았

고 두번이 10.8%, 4번이 5.4%가 있었다.

가정방문을 하는 이유는 아동상황 파악과 부모와 유대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각각 86.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탁아소 사업 협조가 62.2%, 지역파악이 3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 방문은 부모들과의 친목도모와 아동에 대한 올바른 보호와 교육을 위해 중요한 매개고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최소 1년에 1회이상 가정 방문 실시가 요구된다 하겠다.

가정방문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교사가 바빠서가 72.7%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와 부모들이 불편해 하므로 등도 각각 9.1%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일상 업무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노동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이며, 이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활동등을 위촉시키는데 한 몫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커탁아소는 지역의 타단체와 연대하여 행사를 벌인적이 있습니까에 대해 63.0%가 지역의 타단체와 연대행사를 하고 있으며 36.96%가 연대 행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연대 행사의 내용은 주민 의료 활동과 지역실태조사가 각각 21.7%, 주민잔치가 17.4%, 마을신문 발간, 주부야학이 각각 6.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탁아소들은 탁아고유의 업무외에도 지역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의료, 마을잔치, 신문 발간, 야학등의 사업을 타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졸업생과 관련한 모임에 대해 28.3%만이 모임을 갖고 있었고 63.0%가 갖고 있지 않았다.

졸업생 모임의 형태는 친목계 형식이 84.6%로 가장 많았고 후원회 형식이 46.2%, 운영 위원회 참가가 15.4%, 소모임 형식이 7.7%등으로 나타났다.

즉 졸업생 부모들과 계속모임이 이루어질 경우 친목 강화를 위한 모임과 탁아소 재정 운영과 관련된 모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부모들의 이사등의 유동성으로인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7. 탁아소에 대한 부모 등의 관심도에 대해 높은편이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47.8%로 나타났고 낮은 편이다는 6.5%에 불과해 대부분 탁아소 부모들의 관심도가 보통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탁아소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는 탁아소의 운영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므로 부모들의 관심도를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부모 등이 탁아소 생활중 관심이 많은 부분은 교육내용이 9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이들 식사와 간식, 탁아시설, 탁아비, 탁아소 재정, 탁아시간, 부모회 운영, 탁아수용 인원, 교사의 활동, 교통, 위치문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역시 아이들의 교육내용과 영양, 교육시설등 제반 교육 여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 등이 탁아소에 대해 불만을 갖는 내용을 보면 탁아시설이 56.5%, 교육내용이 26.1%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교통, 위치문제, 탁아수용인원, 탁아시간, 부모회 운영, 탁아비와 탁아소 재정, 아이들 식사, 간식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에서 탁아소 행사가 너무 많은점, 교사이동이 잦은 점등을 지적했다.

이를 볼때 부모들은 열악한 탁아시설과 교육내용등 아이들 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또한 탁아소 거리가 먼점등을 그 다음 불만으로 꼽고 있었다.

위의 두가지 사실을 볼때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시설과 교육내용등 교육에 관한 관심이 첫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사들은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뿐 아니라 어려운 재정으로 기인한 좁고 열악한 시설공간, 교재, 교구의 부족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당국의 지원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 □□ 자원 활동가 실태에 대하여 □□

1. 자원활동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교사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91.3%로 가장 많았고 탁아활동가의 양성을 위하여가 58.7%, 탁아운동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41.3%, 탁아활동이외의 활동(지역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가 28.3%로 나타났다. 이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교사의 부족현상과 탁아활동가로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2. 탁아소에서는 자원가가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78.3%가 자활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21.7%는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자원가의 수에 대해 56.5%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9.6%가 적당하다. 8.7%가 만족한다고 대답함으로써 과반수 이상이 자활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자활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 본 결과 65.2%가 자활일지를 쓰게하고 있었고 63.0%가 교사와 개인적인 친밀관계 형성, 50%가 탁아소내 자활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는것, 39.1%가 활동하기 전 사전 교육, 34.8%가 단계적인 역할 분담, 21.7%가 탁아에 관한 학습이나 세미나를 하도록 유도, 17.4%가 지역위내 자활 모임 참여, 13.0%가 교사회회의에 참석, 8.7%가 자활 개인카드 기록등의 방법을 쓰고 있었다.

자활가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17.4%가 원해도 오지 않기 때문이고 4.4%는 지속성이 없어 오히려 일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경우였다.

3. 자활이 탁아소에서 활동하게 된 경로는 전체의 54.4%가 교사와 운영자와의 개인적인 인맥으로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23.9%가 지탁연에서 연결시켜줘서, 13.0%가 탁아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회보를 통해서라고 대답했다. 이를 볼때 지탁연 소개로도 활동하고 있는 예가 있지만 보다 조직적인 통로를 통해 활동하는 것이 관리의 편리함이나 체계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하겠다.

4. 탁아소내 자활가 모임이 있는지에 대해 78.9%가 비 정기 모임을 하고 있었고, 21.1%만이 정기 모임을 하고 있었다.

자활의 모임 구성은 전체의 72.2%가 교사와 자활로 구성되어 있었고, 26.3%가 자활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활모임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친목도모와 탁아소 행사 계획, 아동교육, 탁아운동, 탁아소 운영, 활동가 양성, 지역일 논의등에 관한 것이었다.

5. 자활가 관리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친목도모, 올바른 사회인식, 아동교육, 교사보조, 탁아소 이해, 지역 운동, 활동가 양성, 후원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탁연 소속 자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자활이 거의 부족한 상태였고 자활관리를 위한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모임이 있을 경우 교사와 자활이 함께 모이는 형태였다.

또한 자활은 과중한 업무인 탁아교사의 보조 교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탁아운동을 이해하고 탁아 활동가가 되기 위한 훈련은 쌓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자활이 각 지역위내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 분석을 마치고 나서

3월에 작성된 것을 뒤늦게나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분석과정에서 유사한 문항의 통계가 다르게 나타나 분석작업에 혼돈이 생겼다. 이의 주된 이유는 설문지 작성당시 문항을 만드는 전문적 기술의 부족과 배포 당시 사전 교육의 부재로 인해 나타났으며 더불어 설문지 작성 당시 성실한 교사들의 자세도 미흡했다고 보여진다.

우리의 활동을 객관화 시켜내고 자료로 만들어 모든 활동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사전교육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성실한 작성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93 신년 선물은

## 새날을 열어갈 우리아이들 달력으로



## 탁아 활동가로서 우리는 선거 시기에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 2차 교사정치 토론회 자료

지탁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대통령선거 대책본부

### 지탁연의 대통령 선거 투쟁 방침에 대하여

#### 1. 대통령 선거 투쟁의 목표

- 1) 현정권의 부정 비리 실정을 폭로하여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각인 시키고 민주대개혁 실현을 위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 2) 민주대개혁안의 하나인 탁아문제를 선거투쟁을 통해 대중적 요구로 결집하여 지탁연의 정치적 힘을 강화시키고 조직적 발전을 도모한다.
- 3) 현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치적 의식 함양속에서 교사들이 대중활동가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
- 4) 대선의 중요성 속에서 자모, 자부의 의식수준에 맞는 활동을 전개하여 부모조직을 활성화 시킨다.
- 5) 연대 활동을 강화한다. 탁아문제를 광범위하게 홍보, 선전하는 계기로써의 중앙 연대와 부모, 교사 조직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연대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 2. 대통령 선거 투쟁 방침

##### < 조직 방침 >

1. 대선이 갖는 특수성과 중요성 속에서 지탁연의 통일적인 대선방침이 필요하며 중앙 대선본부 방침을 지역위원회는 적극 수용한다.

2. 지탁연내의 대선본부는 교사, 자모를 기본조직으로하여 구성하고 교사, 자모 교육과 조직 활동, 홍보활동, 법개정 활동 등 내부 활동과 외부 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1) 내부조직 차원에서 활동가로서의 교사의식 함양, 그에 따른 활동전개, 자모, 지역의 대중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2) 여연, 사대의등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탁아문제를 가시화, 극대화 시킨다.

3. 지역 대선 대책 본부는 지탁연 방침 수립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각 지역위에서 합의해내고 전교사, 자모의 참여를 확대해 낼 수 있도록 지역대표자 회(혹은 운영위) 산하로 구성한다.

(1) 각 지역위의 대선시기 활동을 총괄하고 교사 교육을 전담, 지탁연 상, 하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지역대표를 중심으로한 대책 본부를 구성한다.

(2) 지역내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대선 대응 구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연대 전담반을 구성한다.

(3) 자모 정치 의식화 및 통일적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자모교육 전담반을 구성한다.

##### < 사업 방침 >

1. 각 지역위와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 방침을 결정한다.

2. 각 지역위는 지탁연의 통일된 선거 방침 수립에 따라 전국연합의 대선투쟁 방침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알 권리를 제공 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표명은 하지 않도록 한다.

3. 대선투쟁에 있어서의 승리는 대중들의 투쟁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모 대중들이 주체로 나설수 있는 실질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 3. 후보전술에 대한 지탁연의 입장

----- 이것은 지난 10월 21일 '1차 교사 정치 토론회'와 10월 29일 대선본부, 지대의를 통하여 수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 하였습니다.-----

1. 지탁연은 단일한 정치 방침을 결정, 표방할 것인가?

1차 정치 토론회에서 전국연합 10월 10일 대의원 대회의 의의와 결정과정을 생생하게 들었다. 지금 범민주 단일후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정치협상 작업에 착수해 있다.

대선투쟁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신명나는 활동은 후보전술이다. 우리의 희망을 담은 대표를 선전, 홍보하며 유세장에서의 사업은 가히 선거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는 몇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중앙 차원의 강력한 입장과 방침을 제시해 줄것을 요구해왔다. 즉, 지탁연이 정치적 입장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자는 것과, 입장 발표는 무리이므로 활발한 사업을 펼치는데 필요한 내용을 생산해 줄것을 바라는 두가지 측면이었다.

후자는 매 시기마다 대선본부를 통하여 방침과 자료를 부족하나마 제공해 왔고 이에 따라 자주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93' 대선에서도 1,2차 정치토론회와 실천운동의 구조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입장 통일은 대동단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탁연의 현재적 조건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 2. 만약 정치적 입장을 표방한다면?

- 1) 지탁연은 중앙의 정치적 방침 채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 2) 전선운동을 힘있게 밀어줌으로써 전체활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후보 단일방침 채택 이후에도 관건이 되고있는 통일적 합의와 실천수행에 도움이 됨)
- 3)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자모 사업, 지역 사업등 활동에 혼선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탁연은 연대조직이 모두다 정확하게 전국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내부에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국연합의 입장을 따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만약 여연등이 전국연합에 가입 한다면 우리도 그 결의를 따를 것인가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본다.

## 3. 우리의 조건과 역량에 맞게 활동을 전개하자.

이제 우리는 조건상(전국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대중조직이므로) 대선투쟁을

반민자, 반국민투쟁, 공감단 활동등 후보전술을 제외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 1) 단위(개탁아소, 지역)별로 조정 합의를 통하여 활동의 폭과 수위를 조절한다.
- 2) 활동에서 오는 혼선을 감수하며 그에따른 책임을 진다.
- 3) 후보 전술을 채택하지 않은 이상 어떤 후보관련 활동도 탁아소에서는 하지 않으며 그외의 활동에서는 총력을 기울인다.

## 4. 활동 내용

1. 민주대개혁안을 중심으로 탁아문제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 영유아보육법개정, 탁아소 확대, 지원등에 관한 문제를 연대 활동(여연, 사대위, 지역연대), 선전 홍보작업을 통해 전개한다.
2. 대중의 정치적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 대중과 항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대중활동가로서 교사교육을 실시하며 자모들의 정치의식 고양과 실천력 향상을 위한 자모교육을 실시한다.
3. 민주정부 수립에 필요한 선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 현정권 부정 비리 폭로, 탁아문제, 반민자, 반국민, 공정선거 활동등.
4. 공명선거 운동
  - 투표 참여 운동, 부정선거 저지 투쟁, 공정선거 감시단 활동, 언론의 공정 보도를 위한 활동등
5. 지역 연대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개 탁아소의 독자적인 활동만으로는 효과적인 활동이 되기 어려우므로 지역의 대선 대응 구조에 적극 결합한다.

## 5. 행동 지침

1. 지탁연의 통일적 대선투쟁 방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2. 교사들간의 대선 투쟁에 관한 논의시 각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
  - 만약 견해차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논의를 피하지 말고 단결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한다.
3. 교사 스스로 대중 활동가로서 대선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지역과 자모 조직을 위한 항상적인 고민과 치열한 실천 투쟁을 전개한다.

## 선거 대책 활동의 대중적 전개를 위하여

### 1. 왜 우리에게 자모 정치의식화에 대한 통일적 지침 마련이 필요한가?

'왜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자모의 정치의식을 고양하려 하는가'

'우리에게 있어 자모정치 사업은 무엇인가'

중요한 정치적 고비가 있을때 마다 우리 교사들에게 매년 새롭게 되짚어 지는 질문들이다.

우리는 최근 몇차례의 선거를 경험했다. 다른 사안과는 달리 선거시기는 여러 모로 우리에게 중요성을 갖는다. 제한된 시간속에서 급박하게 변하는 정치 정세들, 또한 그런 만큼 대중이 직접 정치적 경험을 느낄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이 직접 최소한의 실천이라도 해볼 수 있는 공간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한다. 자칫 대중의 의식만큼도 따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경험도 있을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거라는 시기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누가 되느냐의 결과도 중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들, 결정들 그속에서 대중은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일 것이다.

이번 대선은 지난 몇차례의 선거들 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권교체에 의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있기에 그러하다.

총선과 두차례의 지방선거를 거치며 우리는 많은 반성을 했다.

활동가 스스로 정치적 각성이 덜 된 상태에서 확신없이 대중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관성에 젖어 일회성 정치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구태의연한 결과를 낳는지....

평가 중엔 다음엔 좀더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중앙의 선거 투쟁 방침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매시기 만들어졌던 중앙의 방침들이 덜 정교했고 실제로 활동에 활용하기에는 그 내용들의 구체성이 떨어짐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미흡해도 내려진 지침에 우리 모두 얼마나 신심있게 달라붙어 실천하려 했느냐도 반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총선시기의 '자모 교육안'의 부족함에 대해 반성을 하며 조금더 알찬 내용의 지침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 2. 자모 교육의 목표와 수위

1) 대선의 중요성 속에서 자모들의 정치의식의 고양을 통해서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2) 현 집권당의 정책과 비리를 알리고 특히 탁아문제에 대한 허구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하여 민주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3) 여성으로서 주권행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모 성향을 올바르게 파악해서 자모 수준에 맞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활동 방향을 잡는다.

### 3. 자모 교육 내용

#### 내 소중한 한표가 모이고 모여

정치란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다스리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뽑는 일이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통해 나라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까지 신경 쓸 수 있는 한 가정의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해 낼 사람을 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면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93 대통령 선거는 40년이 넘는 독재권력을 심판하여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민주 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의 과제가 있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또 국민들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헌신짝 내팽개치듯 던져버린 독재권력에 의해 정권이 다시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한표가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고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선거를 통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해봐야 되겠느냐'고 포기해 버리는 생각, '내 할일만 하면 된다'고하는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민주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출전해 금메달을 땀던 황영조 선수가 '우리나라 마라톤은 안돼,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은데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연습하고 출전했다면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황영조 선수의 승리 가능성은 10%도 안되었는데 그는 한국 육상 56년만에 일장기 대신 태극기를 당당하게 달고 시상대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승리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최선을 다했던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내 한표가 모이고 모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표 어디로 갈까요?

막상 선거일이 되어 투표를 할라치면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할지 망설여 집니다. 여태껏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아무나 찍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되는것이 꿈이어서 꼭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책상앞에 써 부치면서까지 대통령을 꿈꾸었던 사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30년 야당을 하면서 국민들이 시키는 온 일을 대변하겠노라 약속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여당과 합당을 해버린 사람, 오직 그 대통령 자리만을 위해 자신의 권력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을 배반한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노사화합도 제대로 못해내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88년 국회 청문회때 00그룹 계열 회사의 노동자가 사고로 죽었을때 '우리 회사 노동자가 수천,수만명이 넘는데 한명이 사고로 죽었다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 노동자들을 착취해가며 벌었던 돈을 풀어서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그런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우리 후보를 내서, 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든 요구를 대변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이 아닐때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이듯이 기존에 있는 사람중에서 우리의 요구를 일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결된 힘이 필요하며 이러한 힘은 리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에서부터 가능해 질 것입니다.

자료:1)김영삼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2) 각당을 보는 입장

정치, 나와 무관할까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정치는 별 관계가 없어.....'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등

더군다나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로서는 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불편함이 사실은 모두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살펴 봅시다.

-> 만원짜리 한장들고 시장에 가봐야 장바구니의 반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9.5%올랐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은 49.9%라고 합니다. 또한 집값 안정을 위해 애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 월세값은 연간 최소 2~300만원씩 올라 1년 동안 애써 저축해봐야 모두 전, 월세 값 충당하기에도 힘듭니다.

-> 교육문제는 어떻습니까?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던져 버리고 있는 현실(년간 100여명이 청소년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남의 일일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곧 겪을 수 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후에도 어린이 유괴나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

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웃은 점점 정을 잃어가고 아이를 둔 부모나 여성들은 밖에 나다니는 것조차 두려워 해야 합니다.

시위진압에는 수백, 수천의 전경을 투입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치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출퇴근 시간에 길이 막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1시간이 넘게 걸려야 하며 급증하는 자가용의 숫자는 우리의 교통문제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지하철은 지옥철이 된지 벌써 오래고, 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 수도물하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으며 공장 지대에 있는 주택가는 공해 때문에 팔래를 낼 수 없습니다. 공장 지대뿐 아니라 이제는 전국이 공해에 찌들어 숨쉬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또한 수입개방으로 농촌은 살 길이 막막하며 우리네 식탁에는 고유의 맛을 지닌 음식물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것 외에도 생활속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불편한 점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느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쩔수 없지, 뭐 내가 힘이 있나'라는 생각을 대부분 할 것입니다.

어느 한부분만 해결되어 진다고 모두 해결되어 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나라의 살림살이가 서민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고쳐질때 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총체적인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 것이고 그렇기에 정치란 우리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민주'란 말 그대로 백성을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정부, 현재 썩고 병든 사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는 썩을 여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를 뜯어 고

치는 등 과감한 '민주 대개혁'을 실행 할 수 있는 정부가 <민주 정부>입니다.

#### 1. 민주주의의 기틀이 확립될 것입니다.

헌법상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한번도 민주주의의 참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멋대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채 날치기로 법이 통과되어 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그런 법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6공화국 출범부터 현재까지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킨 횟수가 무려 13회나 됩니다)

탁아법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탁아사업을 통해 기반을 확립해 온 이들의 목소리는 저 멀리하고 기혼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고 그에 따라 탁아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별 고민없이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탁아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탁아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겸손히 받아 들였다면 그런식으로 날치기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국민이 진정 나라의 주권자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국민들을 알보고 우통하는 정부와 그런 법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세력에게만 유익하고 왜곡되어 있는 법이 아닌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법과 신뢰받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 2. 물가가 안정되고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실시되며, 맘흔려 일한 사람들이 정당한 댓가와 사회적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물가가 계속 뛰는 것은 6공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탓에 부동산 투기로 생긴 불로 소득 때문입니다. 6공화국은 임기초에 '토지 공개념'과 '금융 실명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폭락과 부동산 투기'운운하며 금융실명제를 포기하고 '경기 부양과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 공개념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정되었습니까?

생산직 노동자의 80.3%가 주택, 전세금 마련을 위해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감

수하며 일하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하기 싫어하는 풍토를 없앤다는 구실로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강요하며, 국민의 과소비와 임금인상이 물가 인상의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인상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가가 올라 이익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대규모의 부동산 소유자, 재벌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물가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불로 소득액이 국민 총생산액의 8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돈의 반 이상을 소수 재벌들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벌들은 각종 세금감면 특혜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85년부터 87년까지 78개의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414억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특혜를 주었습니다. 반면 국민들에게는 여러가지 방도로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 단 한방울의 석유를 사더라도 기금 명목의 세금(년간 약5조원)을 받고 있으며 그돈은 국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곳에 사용합니다.(년간 1인당 세금 분담금 115만원)

이렇듯 독점과 재벌 위주로 편제되어 있는 경제 구조는 해체되어야 하고 금융, 조세제도의 민주화와 물가안정, 토지 공개념이 확대되며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땀흘려 일한 사람들이 정당한 댓가와 사회적 대우를 받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3.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지위가 보장되고,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딸자식이 조금만 늦어도 부모들이 발을 동동구르고 혹시나 유괴라도 될까 마음놓고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강간의 경우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잔혹한 살인을 동반(14세이하 10건, 14-26세 26건, 이중 사망 8건)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96%가 강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합니다. 또한 강간 당한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 몸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낙인이 찍혀 정신적 고통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순결만을 강요해온 우리 사회의 성규범 때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정권은 왜곡된 경제정책으로 향락산업, 서비스산업을 비대하게 하여 여성들을 상품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성적인 노리개로 전락하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관습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 모든 잘못이 여성개인에게 있는 양 사회분위기를 끌고 갑니다.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기혼여성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팔려 산업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 대량실직과 고용불안정 상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여성의 23%정도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2.7%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기혼여성인 경우는 미혼인 경우보다 임금이나 작업조건에 있어서도 훨씬 불리한 실정입니다.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승진기회박탈, 모성파괴등으로 평생직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평등한 권리와 의무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게만 전가되어 있는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탁아시설은 양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96년까지 90%를 민간에게, 나머지 10%의 국공립시설로 정부는 탁아사업을 완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아'는 명실공히 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제도이며 그 혜택은 이 나라의 아이들 그 누구라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공립시설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올바른 탁아제도를 실현시킬 의지가 거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가올 민주정부는 이러한 여성과 아동의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도 먼저 제도를 정착시키고 올바른 정책을 펴 나갈것입니다.

### 4. 6천만이 하나되어 통일의 춤을 출것입니다.

평화통일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말로는 통일을 외치면서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막고 있으며 이산가족들을 가슴설레게 하고는 북한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고자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과 문익환 목사는 지금도 차가운 감옥안에 있는데 정주영 김우중등 재벌들은 북한을 방문해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커녕 마치 통일인사인냥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을 원하는 정부의 태도입니까?

또한 남북합의서를 채택해 놓고도 북한을 이적단체로 여기는 국가보안법은 고칠생각도 안하고 있으니 통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정부에게 통일의 기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대선에서는 꼭 통일을 이룰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우리의 염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 5. 그 밖에 사회 구석구석까지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수도물마저 공해에 찌들어 마음놓고 마실 수도 없으며 농민들은 수입개방으로 완전히 알몸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평균 25개 기업이 부도가 나 92년에 8,00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 할 예정이며, 수서비리, 정보사터 사기사건, 민자당 연수원 특혜매각사건등 각종의 경제비리 사건은 앞다투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점상등 도시영세민들은 도시개발이라는 허울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쫓겨 밀리는 인생살이를 해야하는 반면 백화점에는 온갖 수입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국산품을 살려면 골라서 사야하는 형편입니다.

국민1인당 400만원인 국방비를 50% 줄인다면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과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잘못된 정치와 정책으로 생활전선에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 <민주정부>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정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헌정사를 살펴보면 국민이 한번도 승리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심각한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집권여당이 무조건 된다. 돈과 총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안되

는게 뭐냐. 개들이 순순히 권력을 내 줄것 같으냐."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게 누구겠습니까? 뿐만아니라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에 젖어들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두번째로는 이번 대선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투표를 하겠다는 결심을 떠나없이 가지는 것 입니다. 집권여당이 가장 두려워 하는게 국민들의 투표참여입니다. 뜻있는 국민들이 '대안이 없다고'투표를 하지 않았을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난 광역,기초의회 선거에서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30%정도의 기본고정표가 여당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거때만 되면 최전방부대부터 제주도까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금매달,부정선거 왕국입니다. 한준수,이지문씨등이 폭로했던 부정선거는 조족지혈입니다. 이미 민심은 집권여당을 떠난 상태에서 민자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금권과 관권선거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6공화국과 민자당 정권의 정치적 기만과 배신을 이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기에 민주화를 열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과 단체들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연합은 6공화국과 민자당 정권의 기만성과 정권 유지를 위한 허황된 입발림을 폭로하며 전국민과 함께 민주정부 수립의 의지를 고양시켜나가며 민주대개혁을 이루기위해 전국민을 일치단결시켜 국민들의 힘에 의한 국민들의 권력, 국민들의 정치를 실현 할 것입니다.

위의 실천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회의>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대연합을 구축하고 올해는 기필코 해방이후 최초의 민주정부 수립의 계기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 4. 자모교육 방식

##### 1. 원칙

- 1) 선거시기동안의 자모교육은 자모들이 자주적 시민으로써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자모 교육시 완결된 결과물을 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풍부한 내용 전달

과 자유로운 토의 속에서 자모 스스로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자모교육의 장을 새롭게 만들려는 노력도 좋겠지만, 그 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4) 교사가 모든 자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동, 교육하려 하지 말고, 자모끼리 <선진자모가 타 자모 추동>의 추동을 적극 활용해야겠다.

## 2. 교육방식

1) 가. 정기자모회, 임원회의, 공동 자모회, 소모임등의 장을 이용하는 활동.

나. 주간계획안, 대자보 활용

다. 일상적인 만남속에서 자모와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끌어내는 방식  
라. 지역모임이나 집회등에 함께 참석하는것.

2) 정기자모회등의 모임에서의 교육방식에서

가. 자모가 직접 토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 실생활과 연결된 것을 예로써 설명하며, 자모들이 느낀 문제점을 자유롭게 얘기 할 수 있도록 하자.

예) 탁아문제가 왜 계속될까? 지역문제, 직장문제, 집값, 물가인상등의

- 선거의 경험속에서 느꼈거나 직접 체험한 부정선거의 사례 얘기

나. 자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자.

- 식구들이나 직장동료와 선거에 대해 얘기 하기

- 부재자 투표에 관하여

3) 주간 계획안

- 각 탁아소에서 주간 계획안에 매주 선거에 관한 내용을 시리즈로 실어나간다. 이내용을 중심으로 자모들과 일상적 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자보

- 신문등에 나오는 시사 만화등을 그림이나 간단한 글로 써서 매주 다른 내용의 대자보를 마련하는 방법

## 3. 실천방안

일률적이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자모의 수준과 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 가족, 회사동료와 대화하기 - 사후 확인작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다.

- 부재자 투표, 유세장 방문.

- 부정선거 고발: 탁아소가 임시 고발 장소가 되고 탁아소에서 모아서 공감단에 제공

- 지역연대 활동: 공감단, 공선험동 지역 대선 활동

- 텔레비전 시청요령에 대해서

## 5. 자모교육시 교사의 자세

1) 자모교육시 교사가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에 관한 모든 교육과 정보,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2) 자모교육은 특정한 시간과 조건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능동적 자세와 활동을 한다.

(예: 자모와 대선에 관하여 1일 한마디 나누기등)

3) 자모들이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과 활동을 해나가는 데 혼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간의 입장이나 의견차이를 최대한 조정, 합의하여 통일된 자모교육방침을 가져야 한다.

4) 자모들의 의식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며 자모들간의 의식차이를 고려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 민주당, 어떻게 볼 것인가

박충렬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정책부장)

### 전통적인 야당의 모습이 투쟁에서 타협으로 변화

70년대와 8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야당의 모습은 군사독재의 탄압을 받고 이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었다. 재야운동권과도 긴밀한 연대를 해오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모습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 해방 이후의 전통적인 야당의 맥을 잇고 있는 민주당은 자신들을 박해했던 세력과 화합을 주장하고, 투쟁이 아니라 타협을 통하여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상당한 점에서 함께 해왔던 재야운동권과도 차별성을 보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화합과 개혁이라는 두가지의 상이한 슬로건을 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민족민주진영과 연합을 하려하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독재세력과도 일정한 타협을 하려하고 있다.

타협적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민주당이 동요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민중을 배신하고 변절하여서가 아니라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데다, 원래 민주당의 지지기반과 그 속성이 동요적이기 때문이다.

기간의 한국정치 상황은 최소한의 의회주의, 선거제도 조차 무시된 채 군사쿠테타에 의해 권력이 장악되고 권력자에 대한 사소한 비판이나 반대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집권세력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야당은 탄압의 대

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야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군사독재에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야당에 대해 과거와 같은 노골적 탄압이 약화되었고 민주당은 적극적인 투쟁이 아니더라도 발전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야와의 긴밀한 연대도 기존의 재야 운동권의 주도세력이 노동자, 농민이라기보다 지식인, 종교인, 법조인 등 주로는 중간세력인데다 우선 시급한 문제가 군사통치의 청산이었기 때문에 재야 운동권과 야당과의 차이는 제도권에 들어가 있느냐 순수사회운동으로 있느냐의 차이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제 재야운동권도 막연한 민주화투쟁에서 사회개혁에 대한 전망을 정립하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 중심이 되는 민족민주운동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정립해 나감으로서 서로간의 동질감과 연대감에 차이가 있게 되었다.

민주당의 현재모습은 그 지지기반이나 본성에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민주당에 역사를 거슬러올라가서 보면 해방 후 토착적 지주세력과 자본가가 중심이 되어 한민당으로 올라간다. 그 이후 사회환경의 변화로 야당의 지지기반은 중소자본가, 소위 중간층 등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외세와 군부, 재벌들에 의하여 통치되는 한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또한 그 개혁적 성향은 상황의 변화와 난관 앞에 동요하고 흔들린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나 권리가 침해 당하더라도 확실한 승산이 없으면 쉽게 투쟁에 나서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독재세력과 민족민주세력의 힘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기울고 동요한다. 지금 이들 중간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은 민자당을 중심으로 한 독재세력과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민족민주세력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 특히 최근 2,3년간의 민족민주운동의 침잠, 동구의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 보수세력의 독세에 영향을 받아 민주당은 상당한 정도 보수적 색채를 띄어가고 있다.

### 민주당의 선거공약도 개혁과 타협속에서 동요

민주당에 토대를 두고 있는 중소자본가와 중간층이 외세와 군부정치세력, 재벌에 의해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갖고 있음으로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현 사회의 변화를 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아무리 독재세력과 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한 개혁조치들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국가보안법의 민주 질서 수호법으로의 대체입법, 안기부의 순수대외정보기관으로의 전환, 경찰과 검찰의 중립화, 중소기업중심의 경제정책,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 교원과 6급이하 공무원의 노동2권 보장, 노조설립의 자유보장 등 노동관계법의 ILO수준으로의 개정,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남녀고용평등 감독관계 도입, 공직선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여성할당제 도입, 모성보호 확대, 탁아시설 확대, 군복무 기간 단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금 상황에서 상당한 개혁적 의미를 갖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은 일정부분 개혁적 경향을 띠고 있음에도 또 한편으로 보면 매우 미흡하고, 타협적인 점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제벌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내세우지 못한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다. 교원이나 6급이하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아니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다.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철폐라고 보다 분명히 표현하지 않고 노조 설립의 자유보장으로 약간은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국방비 감축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나 군부세력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 적정수준의 국방력 육성이라거나 군축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군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등 단서를 달아두고 있다.

#### 그럼에도 민주당은 범 민주진영의 일부분

민주당이 민족민주진영과 독재세력 사이에서 중요하고 그 정책도 타협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다하더라도 민주당은 범민주진영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의 정책중 민주개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으며 민자당의 독재세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동요성은 민족민주진영의 위력과 흔들림없는 투쟁으로 극복시키고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문제이나 우리의 힘이 약하고 독재세력의 힘이 강하다면 민주당은 독재세력의 위세에 기울여지려 할 것이다. 반면 민족민주진영의 힘이 강하면 그들은 우리의 힘에 의지하려 하고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흔들림없는 투쟁으로 중

간층의 동요성을 막고 투쟁에 함께 나서도록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민주개혁과 민자당정권의 제집권 저지는 민족민주운동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이다. 민주개혁과 민자당정권의 제집권 저지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연대하여야 한다. 모든 민주진영이 힘을 합해도 정권교체, 민주정부수립이 어려운 판에 타협적이고 기만적인 점이 있다고 하여 배척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승리의 가능성을 열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650만의 고정표를 확보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다.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을 부분적인 차이와 타협성, 동요성을 근거로 배척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우리의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불가능할 것이다.

#### 전국연합 민주당을 일차대상으로 하여 정치연합 제안

전국연합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제집권 저지와 민주대개혁, 민주정부 수립'을 최고의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할 방법으로 '범민주진영의 정치연합'을 통해 범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이룩한다라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정치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협상을 제안하였다.

전국연합이 주도하는 정치협상은 민주당을 1차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국연합과 민주당간에 중심으로 협상을 전개하고 여타의 세력들은 기본 협상에 포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치협상의 내용은 개혁정책과 앞으로 세워야 할 민주정부의 상에 대한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될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국연합은 1차협상대상으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다. 전국연합의 제안 이후 전국연합과 민주당간에 정치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민족민주진영내의 여타 세력들은 연합의 대상이 아니라 전국연합과 함께 나아가야 할 같은 민족민주진영이다. 연합이란 서로 다른 세력간에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손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민주진영의 여타 세력은 서로 다른 세력이 아니라 같은 민족민주진영이기 때문에 연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민족민주운동의 대표체인 전국연합의 결성을 존중하면서 전국연합과 함께 나아가야 할 세력이다.

전국연합은 정치협상을 통하여 정치연합을 이룰 것이다. 정치연합을 이룬 세력들을 중심으로 하여 범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단일후보를 추대할 것이

다. 범 민주진영의 단일후보가 추대되면 전국연합은 범민주단일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때의 범민주단일후보는 특정개인의 선호도를 떠나서 범민주진영의 대표로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민주개혁, 민주정부를 수립할 대표로서 인정될 것이다.

#### 정치연합을 위한 정책협상 중 여성, 탁아관련 정책

전국연합은 정치협상의 내용 중 민주개혁정책과 관련하여 55개항의 개혁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중 여성, 탁아관련 정책으로 다섯조항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국연합과 민주당간의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할 전망이다.

1. 산전후 유급휴가 90일로 확대, 남편의 유급출신 휴가 7일 설치 의무화
2. 국공립 탁아소 확대, 민간탁아소 지원확대, 남녀노동자 상시 150인 이상 또는 탁아대상 아동 3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탁아소 설치 의무화
3. 국민학교 의무급식 전면 실시
4. 입법부와 행정부에 여성의 참여 할당제 도입
5.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정신대 문제 해결

#### ☆●○○○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

한달의 정치일정 이렇게 알 수 있다. 정치가 겉으로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짜여진 하나의 일정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은 선거, 즉 정치의 근간이랄 수 있는 권력교체 일정이 주기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 (개헌이나 후보선출, 공천 등) 또한 일련의 연속적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일정을 파악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세부적인 일정보다는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정치일정을 중심

으로 보아야 한다. 거시적인 관점을 유지할 때만 세부적인 일정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변동의 지류를 포착하는데 강해지기 때문이다. 신문에 보도되는 정치권의 일정은 지자체, 임시국회 등과 같은 기획기사의 형태나 이런 일정이 여야간 협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십란, 일정공고를 실는 1단기사속에서 주로 한달 일정의 대강을 알 수 있다. 즉 단순 일정과 함께 그 내용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 알아봅시다 !

#### 대선시기 10대 여성정책과제

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1월 9일(월) 여연 회의실에서 '대선시기 10대 여성정책과제 선정과 각 당의 여성정책 비교 평가'를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1. 산전후휴가 90일로 확대하고 남편의 출산휴가(유급)7일을 설치, 의무화해야 한다.
2. 국공립 탁아소를 확대하고 민간탁아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키위해 공공기관에서 여성고용의무할당제 80%를 도입해야 한다.
4. 국민학교 무상의무급식을 전면실시해야 한다.
5. 유아교육 교과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6.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의 최저수치로써 월600,000원 (91년도 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7. 임시직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시간제(단축근무자), 가내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성폭력특별법, 매매음 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9. 입법부와 행정부에 여성참여 비율 20%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10. 정신대문제 진상규명 및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일에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 까치와 까마귀

김 난희 (전주 일터 어린이집)

### ( 마지막회 )

-- 나 때문에 켜기꼬리영감님께서 돌아가셨어. 다른 까치들은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켜기꼬리영감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하지만 난 정말 까마귀가 싫어. 까악까악 하고 우는 소리도 싫고 새까맣고 못 생겨서 싫어. 그냥 싫어. 아까도 까마귀와 같이 있을 때 깃털이 다 떨어지는 줄 알았던 말야. 그리고 나까지도 새까만 색으로 변할 것만 같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같이 다리를 만들자는 거지? --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풀빛까치는 계속 생각합니다.

-- 하지만 나는 깃털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고 새까만 색으로 변하지도 않았어. 다만 그것은 나의 생각이었을 뿐이야. --

-- 아냐, 하지만 그래도 싫어. --

-- 하지만 나 때문에 켜기꼬리영감님께서 돌아가셨어. 난 평소에 켜기꼬리영감님을 무척 좋아했었어. 그런데 왜 내가 켜기꼬리영감님께 그렇게 함부로 큰소리를 치고 내 마음대로 했을까? --

-- 하지만 켜기꼬리영감님께서 그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데에는 그만한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나에게 해주었던 이야기 때문일까? --

풀빛까치는 켜기꼬리영감님의 마지막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풀빛아, 지금은 하나하나의 힘을 합해서 이 힘든 세상을 고쳐나가야 한단다. 너의 고집을 부려서는 안되지."

-- 그래. 지금이 힘든 건 사실이야. 햇님도 그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하늘은 움푹 먹구름이어서 비는 오고 밤낮을 구분하기도 힘이 들고 먹을 것이라곤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없지. 마음껏 날지도 못하고 땅위에 피어나는 예쁜 꽃과 나무를 볼 수도 없으니까. --

-- 그렇지만 나는 왜 그렇게 까마귀가 싫은 걸까. --

-- 하지만 지금 이 힘든 세상과 까마귀가 무조건 싫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나를 돌아가신 켜기꼬리영감님을 그리고 우리 까치를 위하는 것일까? --

-- 까마귀와 함께 다리를 만들어 전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것일 텐데. --

갑자기 큰부리까마귀의 강하고 간절한 눈빛과 켜기꼬리영감님의 눈빛이 자꾸만 풀빛까치의 머릿속에 스치고, 떨쳐버리려고 몸을 몇 번이고 푸들거립니다. 하지만 푸들거리면 푸들거릴수록 더욱 강하게 와닿습니다. 마침내 켜기꼬리영감님과 큰부리까마귀의 간절한 눈빛이 풀빛까치의 가슴에 와닿는 순간 풀빛까치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하나의 힘을 합하면 큰 희망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 전체가 흥분과 기쁨으로 꽉 찬 풀빛까치의 몸에는 다시 녹색 빛이 나고 가슴은 벅찼습니다. 까치들에게 돌아와 풀빛까치가 느낀 이야기를 해주자 슬픔에 쌓여 있던 까치들이 무척 좋아하며 하늘을 향해 날개짓합니다. 풀빛까치는 단숨에 큰부리까마귀한테 날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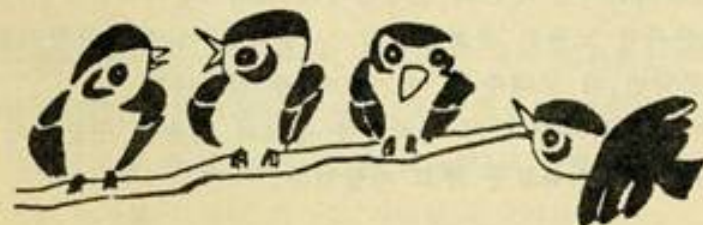
"큰부리까마귀야,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무조건 싫어하고 흘겨보고 미워한 거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지? 이제부터 나 혼자 내 고집만 부리는 까치가 되지 않을게."

"풀빛까치야, 켜기꼬리영감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이 들었니?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네가 나에게로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어. 괜찮아."

"정말 고마워. 그럼 큰부리까마귀야 칠석날 보자. 알았지? 나 얼른 갈게. 준비할 것이 많아."

풀빛까치는 큰부리까마귀가 사과를 받아주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등에 짙어진 무거운 짐덩어리를 훌훌 벗어던진 기분이어서 무척 흥분하고 좋았습니다.

드디어 칠석 새벽이 되었어요. 까치와 까마귀들은 하늘로 날아갔어요. 김대감님 마을 까마귀들이 큰부리까마귀와 무리지어 수도 없이 올라오고 노란때까치들이 어여쁜 황색 깃을 펼치며 날아오고 있었어요. 풀빛까치와 그 까치들도 힘있게 날개짓하고 읊니다. 은하수 위를 노란때까치, 큰부리까마귀, 풀빛까치 김대감님



마을 까마귀들이 서로의 몸을 꼭꼭 위어 다리를 만듭니다. 그렇게도 멀었던 온하수가 까치와 까마귀들이 만드는 다리로 금새 건우와 직녀가 만날 것처럼 가까워 보여요. 이젠 완전히 서로의 몸을 꼭꼭 위고 다리가 다 만들어집니다.

김대감님 마을 까마귀는 좀 아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가슴이 설레입니다. 조금 전과는 달리 까치와 줄을 맞추어 몸을 위고나자 이상한 설레임이 시작된 거예요.

-- 내가 정말 이 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 진짜로 건우와 직녀가 이 다리위에서 만나고 그렇게 되면 비가 그친단 말인가? --

저만치 동쪽 끝에서 건우가 걸어오고 서쪽끝에서도 직녀가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노란때까치, 김대감님 마을 까마귀, 큰부리까마귀, 풀빛까치, 까치들은 머리, 등이 밝히긴 하지만 서로의 몸을 툐툐히 엮습니다. 혼자만의 까치 까마귀들이 아닌 힘을 모아 이렇게 툐툐한 다리를 만들어 건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사실이 까치와 까마귀들에게는 무척 마음이 벅찼어요. 참으로 기뻐요. 풀빛까치의 녹색 광택은 풀빛만큼이나 어여뻐고 노란때까치의 등과 어깨의 황색은 유난히 빛이 났어요. 큰부리까마귀의 검은색 빛깔도 윤이 나고 김대감님 마을 까마귀의 자주빛은 정말 어여웁니다.

드디어 건우와 직녀가 만나려 하고 있어요. 바로 손만 내밀면 닿으려고 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건우와 직녀의 뜨거운 포옹에 하늘에 질게 드리워져 있던 먹빛 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해요. 비도 그치고 먹구름이 완전히 사라지자 일곱빛깔 무지개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달 모양을 그리면서 하늘을 수 놓습니다. 몇달만에 햇님이 활짝 웃는 얼굴을 내밀고 온세상을 비춰줍니다. 까치와 까마귀들은 머리와 등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이 기쁜 세상에 취해버립니다.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까치와 까마귀가 서로 힘을 모아 만든 다리에서 건우 직녀의 만남은 이 세상을 희망과 기쁨의 세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끝)

높은 호응속에 읽혀졌던 '까치와 까마귀'가 이번호로 연재를 마쳤습니다. 읽어 주신 여러분과 일터어린이집 김난희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호에는 안산지역 노동자 문화공간인 '사람세상'에서 공동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세상 문학반'이 보내주신 "아가에게"를 실습니다.

이 난은 교사와 탁아관계자 등의 창작물을 장르와 내용에 구분없이 게재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자유로운 투고 바랍니다.

## 활동총괄

###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교사 정치 토론회 열려

'지탁연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대통령선거 대책본부'는 10월21일, 11월11일 두차례에 걸쳐 교사정치토론회를 가졌다.

두 차례에 걸친 정치토론회에 3-40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참여하여 이번 대선의 중요성과 교사들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토론회날에 지방지역대표자회의와 지방아동교육분과회의를 서울에서 갖는 등 지방교사들의 참여를 도왔다. 1차 교사정치토론회는 전국연합의 기본적인 대선투쟁방침과 후보전술, 각 당의 선거전략과 각 사안에 관한 후보들의 시각, 민주대개혁안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검토하는 발제와 전국연합 정책실장의 최근상황과 후보전술채택과정에 관한 도움말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3조로 나뉘어서 '탁아활동가로서 선거시기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왔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자모교육만을 선거투쟁활동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반성하고 자모교육과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 교사들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정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2차 교사정치토론회는 '탁아활동가로서 우리는 선거시기에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탁연의 선거투쟁방침과 대선투쟁의 대중적 전개를 위하여'라는 발제로 이루어졌다. 이어 마련된 조별 토론회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해내고 그에 따른 입장차이를 극복하여 통일적이고 단결된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서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성과 타성에 젖은 자모교육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많은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속에서 이루어진 정치 토론회는 지탁연의 교사정치교육과 토론 분위기 마련이라는 면에서 그 긍정성이 있으며 이후에 마련될 자모교육 워크 (11월18일, 수, 오후6시, 본 회 교육실)과 함께 자모정치교육의식화와 조직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자리할 전망이다.

##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나.

김명숙 (동부 개나리 동산)

“참된 권위는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에서 저절로 우러 나오는 것이다. 즉 권위를 가진다는 말은 어떤 외적 힘에 의한 강제가 아닌 아동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어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글귀를 되새기면서, 오늘은 얼굴을 붉히지 말자. 그래, 꺾꺾 참으면서 올바른 권위를 갖는 교사가 되자라고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탁아소로 향한다.

그러나 현관문을 여는 순간 벌어진 광경은 나를 무색하게 만든다. 언제나 그랬듯이 놀이감은 방안 가득 여기저기 널려있고 들어온지 얼마 안된 아이의 울음소리, 자동차가 서로 자기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아이들, 창틀에 앉아 무어라고 중얼거리는 아이 등등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얼굴은 울그락, 불그락 어쩔줄을 모른다. 그래도 다짐을 했다고 쟁그러진 얼굴을 피면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업시간에 들어간다. 작업시간 동안에는 정말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참된 교사의 권위는 나하고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억압, 명령의 권위가 마구 쏟아진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러면 안되는데..’하면서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오후 2시 30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낮잠시간, 안 자려고 버티던 5살, 6살짜리들도 어느새 잠이 들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들은 어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평온하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얼굴에 두서너번의 입맞춤을 한다. 자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그래, 꿈속에서라도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곳으로 가거라, 아침에 불던 비누방울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보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엄마에게도 가고, 넓은 풀밭에서 벌레도 잡고, 잠자리도 잡아보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한강에도 나가보렴. 거창하지도 않은 너희들의 꿈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때때로 너희들

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변명하던 변명을 하고 있으면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슬그머니 일어나다. 또다시 선생님과 아이들의 오후 전쟁놀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어우러져 놀고 있으면 엄마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다. 하나 둘씩 빠져나가 마지막 한 아이가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인사를 하면서 나간다.

휴-우, 안도의 한숨을 내뿜으면서, 내일 또 오겠구나

‘그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전쟁놀이도 필요하겠지’하면서 빗자루와 걸레를 든다.

각 지역위원회에서는 오는 1월초에 있을 '93 총회와 동계수련회'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위원회 92년 사업평가와 93년 사업계획을 정리하여 12월초까지 대표자회의에서 수합하도록 하여주세요.
2. 지역위원회 총회를 되도록이면 1월 연합회 총회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총회와 동계수련회에 대한 지역의견을 모아 끝이여 만들어질 준비팀에 의견을 밝혀주세요.

중앙차원에서는 총회준비위원회와 동계수련회 준비위원회를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하여 준비를 할 것입니다.

# 연합회 소식

〈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 (이하 사대위) 활동에 참여〉

- 대통령후보자 초청간담회 보고대회 열릴 예정

매주 화요일에 모이고 있는 사대위는 대선대책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각 당 후보자와 단체 대표자의 간담회, 그리고 간담회에 이어 모든 회원들과 함께 11월 28일 오후4시에 종로성당에서

간담회 결과에 대한 보고대회를 갖고 거리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현재 각 당에 간담회 참석공문 및 질의서를 보냈고 보고대회를 준비중에 있다.

〈 내년도 탁아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여 〉

지난 6월 본 회의 요구대회의 결실은 국회 예결산 과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따라서 국회의 예결산 결정과정에 우리의 탁아예산에 관한 요구안 제출과 압력행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의 관철을 위해 지난 11월 9일 사대위 소속 단체들과 공동요구안을 작성하여 국회 보사위소속 의원과 예결

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아쉬운것은 올해 대선 일정때문에 심의과정이 겨우 일주일로 단축되고 거의 형식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며 우리의 대응도 시기성을 놓쳤다. 이후에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국회압력 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 모임과 모임

〈 지역대표자회의 〉

10/29 서울경인 지대의 (안양, 성남 불참)

안건으로는 어머니큰잔치 평가와 본 회 대선본부구성과 활동에 대한 논의, 지역별 대선본부를 10월말까지 구성할것이 결의되었으며 정치토론회에 대한 기획서를 검토하였

다. 지역여성조직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중앙개특위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검토가 있었다. 또한 여연 특별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1/5 서울경인지대의

어머니큰잔치의 총괄평가서를 인준하고 대선활동에 대한 점검과 지역상황을 검토하였으며 개특위 제안서를 놓고 지역별 개정활동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유하였다. 93년 총회와 동계수련회를 위해 시기의 조정과 지역총회

를 12월중으로 할것이 결의되었으며 각 지역활동평가와 계획을 12월 둘째주까지 하자고 결의하였다. 또한 간부합식의 시기를 12월5일로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뽑아낸 탁아예산관련 자료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11/10 지방지대의 (광주, 마산, 전북 불참)

대선활동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있어 정치토론회등에 적극 참여가 논의가 되었으며 중앙개특위 제안을 지역별로 논의하여 지방개특위원들이 의견을 수합하기로 하였다. 간부합식에 대한 논의와 총회준비, 동

계수련회 준비를 위하여 지방지대의를 당거서 12월 8일에 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방 지역의 평가와 사업계획공유와 지방지대의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가운데 지방활동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교육연구부〉

제4회 아동관 토론회 (인간해방을 이루는 성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사상]에 대한 세미나를 매주 1회 진행하고 있다.

### 〈자모조직분과〉

자모조직분과는 대선시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자모교육 전담반으로 재편성되어 그동안 자모조직분과 활동을 하지 못했던 지역까지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11월18일에 있을 대선시기 자모교육 실천훈련 (워크)을 준비하고 있다.

### 〈아동교육분과〉

각 지역 아동교육분과에서 활동자료집을 활발히 내고 있다. 구로에서 [문제해동사례집]을 낸데 이어 동부에서 [게임놀이자료집], 안산에서 [수, 과학 활동자료집]을 발간했다. 또 구로에서 [담화활동자료집]

### 〈개정특별위원회〉

중앙개특위는 '개정활동의 청사진 마련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만들어 지대외에 제출하였으며 내년의 개정활동의 사업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서울경인개특위는 경과조치 관련법 조항을 살펴보았으며, 경과조치에 관련하여 교사와 시설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한 작업을 벌였다. 또

### 〈교사조직분과〉

지난 3월에 실시한 지탁연 소속 탁아소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지분석을 마무리하였으며 대선을 앞두고 두차례에 걸쳐 교사정치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교사들의 교육과정(커리큘럼)의 마련과 92년 평가작업을 할 예정이다.

을 12월까지 내기로 했다. 현재 중앙분과장 모임에서는 [문자교육자료]와 재물잔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교사교육자료집]은 내용의 보완을 위해 일정보다 늦어져 올해 말에 발간하기로 하였다.

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부를 하고 있다. 지방개특위는 하반기에 처음 만들어졌기에 주로 각 지역의 활동상황을 꼼꼼히 보고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지역작업을 하는데 보조하고 있다. 서울경인개특위와 사업내용과 일정을 같이하기 위하여 11월에 두차례 모였다.

각 탁아소의 특이활동, 지역위의 중점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식, 영양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소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역대표님! 지역통신원님!

소식을 보내주세요 !!

## ##### 지역위원회 소식 #####

10월 말부터 11월 초순에 걸쳐 각 지역위원회는 어머니 큰잔치 평가와 대선투쟁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였습니다. 아래 지역

위원회 소식에서는 주로 지역별 분과 활동, 특이활동의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편집부 주〉

### 〈동부〉

중앙개특위 제안서를 지역에서 논의하는 가운데 개특위활동계획을 잡고 개특위원을 선출하였다. 개특위활동계획으로는 지원확대를 위해 구청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주위탁아소에 선전작업을 하기로 하고 민탁연대확산을 93년 사업으로 계획하였다. 지역개

특위원으로 선출된 교사는 오윤정(오손도손 애기방) 조윤주(개나리동산) 이희성(슬기 아이방) 이다. 대선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내 타 단체와 연대하여 대선대책본부활동에 탁아교사가 적극 활동하기로 하였다.

### 〈구로〉

개특위 모임(11/2)에서 구로지역 '민간보육시설원장모임'에 대한 준비점검을 했다. 첫 모임은 11월11일에 새터어린이방에서 열기로 하고 구로지역내 비영리 탁아소 7군데에 초대장을 발송하였다. 운영위 모임(11/3)에서 민탁모임 점검과 임원교육, 구로민주단체협의회 확대모임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동임원교육은 (11/7) 토톤이 놀이방에서 김경태 지도위원을 모시고 '임원의 역할과 자세, 자모회의 주체적 참여를 위하여'에 대해 들었고 적극적인 임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졸업 후 모임에 대하여 토론을 했다. 교사교육분과에서는 8월 월례교육 토

론결과를 모아 지역내규에 교사복지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사복지항목의 구체적인 것은 휴가(생리, 유산, 산전산후, 결혼), 근무시간, 육아수당, 퇴직금, 상여금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지역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 해왔던 교사재교육을 11월 12일로 마감하였다. 지역위 운영위 M.T가 11월17일에 있으며 지역총회는 11월 28일에 있을 예정이다. 구로지역위와 연대를 맺는 구로민주단체협의회 확대모임을 가졌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활동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는데 있어 지역내에서 오래도록 대중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모임동기와 전국연합 근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공정선거 실천과 민주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모임)'의 제안이 있었

#### <중부>

지역대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조는 지역대책위원장 밑에 대외사업부, 교육부를 두었고 대외사업부는 지역내 대선 대책기구와 결합하거나 긴밀한 관련을 맺어서 공명선거 캠페인, 지역주민에 대한 선전활동, 홍보, 전단을 담당하고 교육부는 교사, 자모의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마

#### <부천>

새롬어린이집과 롬비니 동산이 200만원씩 아산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각 탁아소들이 가을 소풍을 다녀왔

#### <인천>

인원회의 (10/30)에서 대선대책본부 구성안이 나왔는데 대책본부의 본 부장과 연대작업을 지역대표가 맡고 자모교육전담반을 두어 자모조직분과장과 5인을 선정하여 자모교육을 전담하기로 하였다.

탁아소대표자회의 (10/23)에서는 교육이 있었는데 '자원활동가의 올바른 관리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서정은 간사가 하였다. 보고는 지탁연 연합사업보고와 각 분과모임의 보고가 있었다.

월례회 (10/24)에서는 노래, 율동배우기, 각 탁아소 보고, 어머니큰잔치 평가안 승인, 제1차 교사정치토론회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끝목 어린이집

다. 지역위에서는 선거대책활동에 내부입장을 모아나가고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련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지역위 모임을 대책위 모임으로 전환하여 1차 정치토론회의 평가속에서 내려온 내용을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각 부별로 모임을 꾸려 그 속에서 생성된 내용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 우리아가방 (10/21, 민속촌), 툼튼이 놀이방 (10/22, 민속촌) 새롬어린이집 (10/22, 철도박물관) 롬비니동산 (10/21, 유원지).

에서 일일주점과 헌옷바자회가 있었다.

지역개특위 (10/27)에서는 '(인천시) 민간보육시설협의회' 역할분담과 민.보.협 구조에 대해 중앙개특위 제안서를 검토하였다.

어머니큰잔치 준비 교사와 자모대표 1인이 모여 (10/28)평가와 뒷풀이를 하였다.

11/6 민보협준비위원모임, 탁아소대표자회의가 있었으며, 11월 14일에 민보협준비모임과 11월월례회를 하기로 하였다.

11/8 인탁위 교사 동반대회가 운악산에서 있었다.

#### <수원>

전체교사회회의(11/4)에서 기존에 한달에 두번 모였던 전체교사회회의를 '각 집대표자회의'와 '월례회'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11월, 12월을 교사제교육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4회에 걸쳐 교육내용을 짜기로 하였다. 지탁연 1차 정치토론회 자료를 가지고 대선을 맞

#### <대전>

'대전시기 지역여성대책반' '대전충남 국민회의' '민주화를 바라는 노동자 주민모임'에 참가 활동중이다. 대선 관련하여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대전시의원 서윤관의원과 '보조금법

이해 교사가 지녀야 할 자세에 관해 하려고 했으나 3개탁아소가 처음으로 모였던 자리이기에 하지 못했다. 2차 정치토론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이후에 따로 일정을 잡기로 하였다. 지역교사단합야유회 (11/8)를 민속촌으로 다녀왔다.

조례'항을 살펴보는 가운데 시설지원을 고민하고 있으며 민간탁아소연대 작업 추진예정이다. 구청에서는 93년 아동복지지원을 위한 가구당 소득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 ##### 사람들 #####

\* 본 회 사무국은 새식구 아닌 새식구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경희 (29세, 보담이 엄마)씨로 지난 89년부터 91년5월까지 문화홍보간사로 활동하다 임신과 함께 잠시 쉬다가 올해 9월20일부터 다시 사무국에서 조직간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장단은 서정은씨를 문화

홍보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구로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이소영 (27세) 씨가 8월15일부터 교육강좌 간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은 인원으로 고군분투하던 사무국원들에게는 정말로 반가운 일로 회원가족여러분이 함께 환영해주세요.

\* 박경숙 선생님 :북부 등근나라에서 10월10일부터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단국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CBS 탁아모교육강좌를 받았습

니다. 박부자 선생님:부천 롬비니동산에서 10월 7일부터 활동하셨는데 꽃동네놀이방에서 1년동안 자원활동하셨으며 현재 본 회 8기 교육강좌를 받고 계십니다.

지탁연사람으로 새로이 들어오신 두분 모두의 빛나는 활동을 기대하며 전국의 선배교사들의 따뜻한 격려와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치)'의 문'탁아소의 교육철학

박성연 (사무국 아동교육간사)

넓기는 하지만 오래되어 낡고, 아이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 있으되 풍부하게 갖춰진 교구는 보이지 않았다. 방문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공간의 배치에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겹쳐보였다.

물론 하는 말은 우리와 다르겠지만 같은 모습으로 교사는 더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아이들이 이리저리 물려다니며 노는 속에서 교육의 '꺼리'들을 발견하여 실행할 것이다.

놀이를 강조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넓은 실내공간, 마당(운동장), 최소한의 교구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돌아다니고 탐색하는 그야말로 예전의 '골목'을 좀더 의도적이고 교육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이였다.

이런 탁아소의 형태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철학에 근거한 바람직한 것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다른 짜여진 형태의 일본 '유치원'보다도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철학을 적용하는데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아이를 탁아소에 보내려는 어머니를 만났다. 그는 탁아소는 교육은 별로 신경쓰지 않고 노는

곳이며 유치원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것이어서 유치원 보낼 나이인 만3살이 되면 웬만한 곳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희망의문 탁아소는 교육을 배제하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은 철학과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오해없이 관찰하고 또 여러가지 홍보방법으로 설득해내지 못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탁아소에 대해 오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탁아소, 탁아운동은 그 내의 완결성만을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필연성과 장점을 일반대중에게 설득해 인간해방 세상의 육아사회화를 실현해내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의 이런 인식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가로나누기'이다.

"우리는 '가로나누기'로 학급을 분반합니다. 가로나누기란 나이별 구분을 없애고 장애와 정상의 구분까지 없애 모든 우리의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돌보고 큰 아이에게는 배우고 장애를 가진 아이와 힘을 나누며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에게 서로 배우며 더욱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한다고 믿습니다." 한 교사가 들려준 그들의 교육 철학이다.

사실 이 가로나누기(다연령 집단 구성)는 우리 탁아소들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평소에 그것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던터라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속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거리낌없이 포함된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였다. 실제로 '장애아'는 몸의 장애를 갖고 있을뿐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도 함께 지내면서 더욱 인간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탁아소의 현실조건상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일본이라고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된 조건과 긴 세월의 노력으로 조건을 확보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장애아'가 탁아소에 들어왔을 경우 그 아이가 장애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다른 기관을 찾아 또는 그냥 대책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했던 아픔을 지닌 교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곳곳한 신념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교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 탁아소도 제도적으로 좀더 보완작업을 통해 장애아와 정상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사이좋게 서로 배워가며 지낼 수 있는 참된 교육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조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일을 해나가는데 교사의 힘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로서 처음에 탁아소에 장애아를 만들면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사와 울고 웃으면서 탁아소를 이끌어온 부모가 있다.

정말 인간이, 아이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탁아소에서, 마을에서 온갖 불합리한 것을 깨치고 바로 그것과 직면하여 싸우면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곳곳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습에서 탁아운동의 동력을 느낄 수 있었다.

사고력을 키우는 문제 (해설은 66쪽 아래방향에)  
다음의 5가지 도형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그것을 고른 이유는?



## 권오원(대전 샘골놀이방)

이야기 나누기 시간만 되면 판짓을 하는 아이를 나무랄일만은 아니다. 학교시절, 수업시간이면 연애편지를 썼었던 것처럼 보수교육과정의 야간수업시간에도 나의 사랑(?)지박 연에게 교육을 받는 기간에 생각하는 몇가지를 적어보려 한다. 연애편지처럼.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육내용에 대한 낮은 신뢰 등등으로 인해 보수교육을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고 다른 시설의 교사들을 만나보려는 순수한 속셈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다. 나의 추측이 빗나가지 않았다. 1주일 30시간의 교육과정속에서 24개 과목을 시간표로 짜놓고 시간,내용의 빈약함으로 인하여 재교육의 의미를 잃고 강사조차도 수박겉기식의 형식적인 것임을 말 할정도 있다.

할일 많은 탁아교사가 저녁시간 전체를 잃고 앉아 있어야 하다니, 게다가 레포트제출까지. 첫날에는 화가 났다.

두번째날. 버스안에서 생각했다. 교육시간을 내것으로 만들어야지. 탁아소에서만 생활하면서 관성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해내고 아동교육이나 나의 생활모습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몬테소리,프뢰벨 등 여러가지

이론을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느 강사가 "교육의 질은 교사가 좌우한다"고 단정한다. 물론 이야기라고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의문스럽다. 그러면 교사의 질은 무엇이 좌우하는가?

사회,국가적 차원으로 해결되어야 할 탁아문제를 개인에게,여성에게 책임지우듯이 교육의 질 또한 구조적인 배려나 정책없이 교사 개개인의 지식,품성만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시청 관련 담당자가 나와서 "사회복지와 보육사업"이란 제목을 달고 영유아보육법 해설강의를 하였다. 지역과 담당자의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근거를 영양,건강,안전관리 교육,부모에 대한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라고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하였다.

수혜자부담의 원칙,각종 조항,비현실적이고 반사회복지적인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을 쏙 빼놓은채로.. 질문시간이 주어지자 어떤 교사가 "그러한 시설조건,교사자격조건을 모두 갖추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한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구나 생각하는데 그 담당자의 말이 더욱 핵심이다. "혜택이요? 없어요.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아동별 지원이 있습니다."

## 최경애(부천 새롭어린이집)

함께 가는길에 널 글을 쓰는 날, 처음으로 대판 부부싸움을 벌였다. 한마디로 지지고 붙었다.

"전화도 없어? 새벽 2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

"11시 넘으면 전화소리에 잠을 못잔다며..."

"그렇다고 전화를 안해! 멍청이같이,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새벽 1시도 좋다고 울리는 전화소리에 밤잠이 원래 없는 나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항상 수면 부족상태에 빠져있었다.

그래서 한 말인데 그것을 끝이 듣고 자기만 전화를 안하면 되는 줄 안다.

나는 탁아경력 2년의 임신 8개월 된 교사이다. 결혼과 동시에 탁아활동을 시작한 나는 부천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나의 터전을 잡았으므로 안정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다. 합리적이고 순한 남편이었기에 내가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될것은 없었다. 그러나 웬걸, 임신과 더불어 가정의 평화는 사라졌다. 임신을 하여 내 몸 추스리기도 힘겨워지자 그동안 잘 해왔던 생활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또 전만큼 활동을 못하게된 것이 내겐 스트레스였다. 탁아소일만으로도 힘겨운데 집에 들어오면 일은 그대로 쌓여있고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몸 가볍다고 혼자 일 다하는 듯 다니니 내 생활리듬이 완전 깨질 수 밖에...

부천지역탁아위원회의 교사들은 2/3 이상이 아이있는 기혼이다.

아이를 키우며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는 여지껏 보아왔기에 지레 겁을 먹고 있는 면도 있다. 한결같이 '인사'들만 있는 부탁위의 남편들 때문에 우리는 회의 때 마다 전쟁을 치른다. 회의라고 하면 질색을 하는 아이들. 누워서 회의 안하는 척하고들 우리는 회의를 한다. 이럴때는 정말 누구를 위한 회의인지 '회의'가 드는 순간이다.

그래! '출산후의 나의 전망'에 대해 글을 쓰는 것보단 싸움을 벌여서 남편에게 나의 활동력을 보장받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은 생각에 우리는 동이 터올때까지 티격태격..

집 밖의 일은 운동이고 집안일은 과잉일이라는 생각에 대해,안정된 가정경제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 그 밖에 둘간의 미묘한 문제들에 대해.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싸움은 결론을 못본 채 굴아 떨어져 버렸다. "결국 내가 일을 줄여야 하나?.." 남편의 독백만을 남긴 채.

## 문화란

### < 권하고 싶은 책 >

-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정희연 (부천 룸비니동산)

이면의 제목이 '권하고 싶은 책'인데 내가 "나는 .."을 권하고 싶은 건지 권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직도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단숨에, 밤을 꼬박 새우던가, 손에서 끝까지 책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잘 만든, 좋은 책이라면 이 책은 분명히 그러하다. 그러나 그런류의 좋은 책이라면 시드니 셸던류의 소설들, 요즘 한창 잘 팔리는 톰 클렌시를 비롯한 금방 영화화되거나 영화를 소설화한 그런류의 책들도 좋은 책 범주에 들것이니 좋은 책의 기준이 단숨에 읽어치운다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소설의 줄거리는 재력과 비상한 머리와 (작가는 여기에 미모까지 덧붙이는 실수는 하지 않았다.) 담대한 행동력을 갖춘 강민주라는 인물이 남성에 대한 복수전을 펼쳐 고통에 신음하는 전여성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는지를 그리고 있다. (사실 소설 어느구석에도 강민주를 지지하는 같은편인 여성은 등장하지 않는다. 사건이 여론화되는 과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상당히 불충분하다.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혼자만의 판단, 계획, 실천 등 어디서도 객관화시킬 수 없는 강민주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복수 혹은 응징의 (작가는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까지의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이 '자각'의 차원이었다면 자신은 '응징'을 다루었다고 얘기한다.) 방법은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있는 당대의 인기영화배우를 납치, 감금하면서 일종의 길들이는 과정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길들이려 했는데 결국엔 상대방의 인간성에 굴복해 오히려 길들여지는)이다. 여기에 도저히 없어서는 안되는, 애초부터 대남성 복수전이 가능하지 않게하는 인물 황남기가 한축을 이룬다. 황남기는 강민주의 어머니대로부터 두모녀의 충실한 충복노릇을 하는데 (강민주의 어머니가 집안이 어려운 남기에게 계속 돈을 대주고 민주 또한 그러하다) 목숨을 바쳐 충실한 남기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강민주가 가히 비인간의 대표라 할 수 있는데 여성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는 강민주가 왜 황남기는 인간취급을 안하는 건지 (둘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잘 설명이 안되는 이상함이 있다) 그런 인간성을 지닌 강민주에게 과연 여성해방(=인간해방)의 과업의 일부를 넘겨줘도 좋은 건지. (민주의 비인간은 여성문제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있으면서 상담전화를 받는 태도나 상담소 동료들 대하는 자세에

서도 보여진다. 오로지 상담전화의 가치는 그녀에게 학대받는 여성의 사례수집으로의 의미밖에 없는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답답한 점이 있었는데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 인물 설정 (조금 더 잘나갔으면 여성무협지라는 새 장르가 생기지 않았을까) 과 과연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불타는 적개심을 가진 대리웅장이라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지 등이었다. 여지껏 남성들이 우리 여성들에게 가해온 물리적 심리적 억압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되받아치는 것으로는 결코 문제해결은 안될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작가는 책 앞머리에서 이 소설을 쓰면서 리얼리즘은 당분간 유보했

다고 했으니 소설 곳곳에서 발견되는 비현실성들은 일단 껴들다해도 문제가 남는건 마찬가지였다.

여성문제든지 우리사회의 여러 구조적 모순이든지 간에 그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의분에 찬 개인의 테러(?)식은 아닐 것이라는 점. 우리시대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제발 이책이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의 효과를 가져다 주지 말았으면 하는 점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 딱벌리고 쳐다볼 한명의 '대리 웅장자'가 아니라 설사 더디더라도 반걸음씩이라도 같이 내딛어 세세상을 함께 일구어낼 보다 많은 이웃들이다.

(살림 출판사)

### < 아이들과 함께 읽는 책 >

- "철의 대왕을 올린 나무아이" (웅진출판사/3천원)

중국의 유명출판사인 '소년아동출판사'에서 발간된 <365야 지식동화>를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총 8권으로 꾸며질 번역시리즈물의 두번째 권인 이 책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과학적 지식과 이야기의 조화가 재미있게 이루어져 동화를 읽는 사이에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분을 지나치게 섭취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먹을수 있는 궁전', 포화용액을 알려주는 '소금올진 당나귀의 잔피', 철의 성질을 그린 '철의 대왕을 올린 나무아이', 태풍 마찰력에 관한 '태풍이 휴가를 떠났어요'와 '마찰력 없는 나라에 놀러가다', 올바른 잠자기 자세를 그린 '달님 아주머니가 웃었네요', 인체의 구조를 설명해 주는 '사람 몸 속을 여행하는 수박씨' 등의 내용이 펼쳐져 있다.

〈 좋은 영화보고 나서 〉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를 보고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어디서 들  
어본 듯하다 했더니 열사들의 추모  
식 때 불러지곤 하던 ‘꽃상여 타  
고’란 노래 가사와 같다. 그 때 그  
노래, 가사를 들었을 때 비장함이  
섬뜩하게 다가와 오랜 여운으로 남  
은 기억이 우선 이 영화에 호기심  
을 갖게 했다. 어떤 내용일까?...  
들으니, 새우잡이 선원에 관한 내  
용이란다. 일전에 ‘그것이 알고싶  
다’에서도 자세히 보도돼 그 비참  
함에 충격을 받았다는 친구의 얘기  
도 떠올라 더욱 나의 호기심은 자  
극되었다.

나는 개봉한 날 저녁에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관 안에 몇명이 있는  
가를 세어 보았다. 고작 20명. 오  
늘은 개봉일이고 또 토요일 저녁인  
데... 역시 아직은 유명영화 감독  
과 배우만이 영화 흥행의 보증수표  
인 우리나라의 영화 현실을 새삼  
느꼈다.

영화는 목포의 선착장에 절름발  
이 재호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뱃일을 구하기 위해 온 재호는 조  
직적인 악덕 선주에 의해 새우잡이  
배를 타게 된다. 새우잡이배는 일  
명 명탕구리배라고 하는데 무동력  
선이며 하루 4번의 조류에 따라 그  
물을 올리지 않으면 배가 좌초하기  
때문에 선원들은 눈코뜰 새 없이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데 대다수의  
선원들이 이 일을 기피하므로 불법  
행위를 통한 노동력 조달까지 횡행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래

서인지 재호가 새우잡이배에 타게  
되는 과정은 마치 인신매매를 연상  
케 했다. 이중적 성 규범과 기생적  
정치 경제 구조의 산물인 향락 산  
업의 번창과 폭력, 암암리에 관과  
경찰의 묵인, 방조 내지는 비호를  
받는 현실이 인신매매를 낳았듯이  
전반적인 어촌경제의 피폐화에 따  
른 모순과 이를 이용한 악덕 선주  
의 폭력과 착취는 현대판 노예선을  
낳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 재호는 이미 이 배를  
타고 있던 오갈 데 없는 노인 천  
씨, 가출을 했다가 돈을 벌게 해준  
다는 꼬임에 빠져 끌려온 15세 소  
년 하장, 경찰의 눈을 피해 들어온  
강도범 정복춘, 원양어선을 타려다  
속아서 온 길재, 머리가 모자란 달  
수 등과 함께 선주의 하수인으로  
이들을 감시하는 사공 아래서 고역  
같은 노역을 하지만 늘어가는 것은  
오직 빚 뿐이다. 이들은 가족과도  
전혀 연락할 수 없을뿐더러 6개월  
에 한번 물에 나올 뿐이어서 수차  
레 탈출을 시도하는 재호는 번번히  
실패하여 죽도록 얻어 맞는다. 이  
때 노인 천씨의 말로 전해지는 폭  
력의 참상은 너무도 잔인하다. “맞  
아서 개처럼 죽은 사람,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에 처넣어진 사람, 팔  
다리가 어저 죽은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네...” 일년에 연간 8백  
명의 선원들이 의문사를 하는데 새  
우잡이배는 그중 사고가 가장 많은  
배다. 이는 고립된 채 만연된 선상

구타와 불법체벌, 각종 위험이 도  
사리고 있는 노동조건 등 이곳은  
가장 열악한 삶의 현장이지만 사회  
적 무관심과 묵인 속에 이 배의 선  
원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탈출(이  
영화에서 탈출행위는 인간적 삶에  
의 갈망이요 실천이다)을 포기하지  
않는 재호는 치밀한 계획하에 선주  
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 그 배  
의 사공이 된다.

이 영화에서는 유일한 외부와의  
통로로 남은 라디오 한대가 등장한  
다. 여기서는 종종 87년 당시의 정  
치, 사회 상황들이 보도되는데, 어  
촌 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우리 사  
회의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드러  
남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87  
년, 88년의 절망들은 결말 부분에서  
암시된다.

드디어 재호가 모두 함께 탈출할  
것을 제안하여 이들을 새 삶에 대  
한 기대에 부풀은 채 한바탕 호드  
러진 춤잔치가 벌어진다. ‘이제 우  
리는 육지로 가게 되는 것이다. 잘  
만 하면...’ 그러나 현실은 예기치  
않은 칼날로 이들의 꿈과 희망뿐  
아니라 목숨마저 앗아간다. 무섭게  
몰아치는 태풍 [셀마]에 의해 소년  
을 뺀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만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하  
고 푸르기만 한 바다. 그 위에 홀  
로 떠 있는 소년의 모습위로 라디  
오 방송에서 단 몇초로 그들의 죽  
음이 전달되는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속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느  
끼게 했다. 그러나 영화관을 나오  
며 줄곧 드는 생각은 ‘아마도 현실  
은 영화보다 더 잔혹할 것’이라는  
것이였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  
이 역사와 민중의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살지만,  
솔직히 우리는 민중의 구체적 삶의  
모습을 좀처럼 알지 못하고 가슴으  
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대학 초년  
시기 치열했던 존재에의 물음이 다  
시 신선하게 뇌리를 스침을 느꼈  
다. 민중 생활의 실상을 처음 접하  
고 역시 가진자일 수 밖에 없는 대  
학생으로서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거대한 억압구조 속에 나약함을 느  
끼며 시작되었던 그때의 고민을 나  
는 사랑한다. 조금 나이를 들어버  
린 지금, 회미해질 수 밖에 없는  
그때의 생각은, 그것이 나의 과학  
적 사고에 의해 극복이 되었든 아  
니면 역시 속물어 되었던 간에, 인  
간화의 외침은 처절한 현실을 바탕  
으로 한다는 우리 운동의 기본적  
전제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활동에 매너리즘을  
느끼는 분들께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권하고 싶다. 또 열심히 활  
동하느라 눈코뜰 새 없는 분들께는  
민중영화를 살리는 의미에서, 즉  
‘건강한 예술에 대한 옹호’는 ‘우  
리 민중의 참정서의 옹호’이기 때  
문에 이 영화를 꼭 보시라고 권하  
고 싶다. (편집부 이정희)

읽은책, 보신 영화, 감상하신 연극이나 노래공연등에 대해 느낌을  
적어 보내주세요.

< 연극 >

자기만의 방

'의식의 흐름'을 소설속에 도입해 현대소설의 새장을 열었던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1928년에 쓴 '자기만의 방'이 원작이다. 이 연극은 여성해방 문학의 출발점이라 평가받는 이 원작을 한국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여성이 예술 또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과 독자적인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의 나혜석 씨와 박완서 씨를 삼입해 놓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지하 전세방에 해영이와 영철이를 가둬놓고 일나간 후 불이 나 두 아이를 잃어야 했던 해영이 엄마, 그리고 자기의 일과 가정 사이에서



정상적인 교육이란 측면에서 보면 [정답]은 B가 된다. 그러나 도형 C를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대칭 도형은 C뿐이므로 C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정답이다. 답은 A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불연속점이 없는 유일한 도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도 정답. 그렇다면 D는 어떨까? 직선과 곡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형이다. 따라서 D도 역시 정답. 그러면 E는? 특이하게도

갈등하는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 3장에서는 현대여성들이 '자기만의 방'을 갖고자 하지만 수없이 부딪히는 가사노동 및 양육의 사회적 미해결, 사회적 편견 등을 지적하고 동시에 여성 억압의 사회에서 함께 왜곡될 수 밖에 없는 남성들의 항변을 통해 '자기만의 방' 밖에서 서성이는 여성들에게 자각을 촉구하고 여성성과 남성성이 함께 공존해나가는 사회를 이루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11월 30일까지  
(화.수.목 / 오후 7시30분, 금.토.  
일 / 4시, 7시30분)  
대학로 성좌 소극장 (745-1214)에서

비유클리드 삼각형의 유클리드공간에 대한 투영으로 보이는 것은 E뿐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정답이다. 다시 말하자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들은 모두 정답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육제도는 하나의 정답만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만약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해답을 찾아내는 바로 그순간, 더이상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않게 된다는 것을 아시라!

지택연 베품시장

(판매란의 가격은 회원 공급가격이므로 판매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                                                                                                                                                                                     |                                                               |                                  |
|--------|--------------------------------------------------------------------------------------------------------------------------------------------------------------------------------------------------------------------------|-------------------------------------------------------------------------------------------------------------------------------------------------------------------------------------|---------------------------------------------------------------|----------------------------------|
| 판<br>매 | 우리네 아이들 달력<br>천5백원                                                                                                                                                                                                       | 보육프로그램 1집<br>4만원                                                                                                                                                                    | 자장가 테잎세트<br>4천원                                               | 국악동요테잎세트<br>7천원                  |
|        | 우리네아이들 테잎세트(Ⅱ)천8백원, 숫자글자맞추기세트 2천원,<br>블록딱지장당 300원, 기타딱지류 장당 150원<br>참교육사 제공                                                                                                                                              |                                                                                                                                                                                     |                                                               |                                  |
|        | 진짜 참기름 1병 8천원<br>예쁜인형 2천원부터~<br>구로놀이방(02-863-0468)                                                                                                                                                                       | 값싸고 질좋은 양말<br>성인 천2백원, 아이천원<br>새싹방(032-573-6304)                                                                                                                                    | 예쁜 인형 4천5백원<br>온누리놀이방<br>(02-858-4886)                        |                                  |
| 구 입    | 겨울 난방기구 구함. 팬히터, 전기 난로 등. 사무국 (02-838-3296)                                                                                                                                                                              |                                                                                                                                                                                     |                                                               |                                  |
| 알<br>림 | 본 회 사무실 이전식<br>11월21일, 토, 오후4시부터                                                                                                                                                                                         |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대위<br>대선활동 보고대회<br>11월28일, 토, 오후3시<br>종로4가 종로성당에서                                                                                                                     |                                                               | 이리 정다운<br>어린이집<br>일일찾집<br>11월20일 |
|        | 본 회 간/부/합/식 !!<br>92년활동의 총화와 93년<br>의 전망수립을 위해<br>12월 5일, 토, 오전9시~<br>서울승실대사회봉사관<br>지역대표와 지역교사1인<br>반드시참여바랍니다.                                                                                                           | 동부지역아동교육분과는 '게임 놀이자료집'을<br>발간했습니다.<br>안산지역아동교육분과는 '우리아이들을 위한 수<br>.과학활동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br>회원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br>구로지역아동교육분과는 '문제행동사례집' 발간<br>에 이어 11월 중으로 '담화자료집(만3-4세)'을 발간합니다.기대해주세요. |                                                               |                                  |
|        | 전교조 놀이방 '신나는 꼬마방' 열어<br>해직 교사 자녀를 위한 전교조 놀이방 (원장 김복희)이 10월 30일 지하<br>철 2호선 당산역 부근 승리슈퍼 맞은편에 문을 열었습니다. 총 15평면적<br>에 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탁아방은 앞으로 여건이 되는대로 지역<br>아동들에게도 문을 열 계획, 현재는 유치원 정교사 1명과 자원봉사 학부<br>모 1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                                                                                                                                                                                     |                                                               |                                  |
|        | 함께가는길에 투고하셨던 가족여러분께,<br>편집부는 그동안 소식지에 투고하신<br>모든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을 마련<br>하였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매달의 화제영화를 관람할<br>수있는 영화표를 드립니다.<br>관심있는 분은 연락주세요<br>(편집부 담당자) |                                  |

## 편집부에서

지난달 10월호 발간 후 말씀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목소리, 탁아소 별곡등 지탁연가족여러분이 참여하는 면이 몇 몇 탁아소에만 편중되어 청탁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편집부는 자유로이 보내주신 투고를 우선적으로 실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불가불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여라도 청탁받지 않으면 함께 가는 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끔 한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나 열려있는 '함께 가는 길'에 들어오세요.

다음달에는 좀 한가해지려나, 매달 바라보는데 항상 더 바빠지고만 있으니 내겐 정녕 휴식의 시간은 없을 것인가. 바쁜만큼 더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만 들고 나면 매번 아쉬움만 더 크다. 계속 노력하는 것만이 내폭인가보다.

(회연)

별로 한 것이 없어 다른 편집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소식과 소식란에 빠지는 지역없이 골고루 소식이 실게 지역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지역통신원들이여 잠에서 깨자!

(애용)

사람을 만나는게 어려워 쓰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발로 뛰며 하는 거라 공부가 많이되고, 쓰느라고 골치가 아플수록 활자화되었을때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쓰는 일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점점 애착이 간다.

(정희)

갈수록 만드는 것이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발간일에 맞춰 원고를 수합하고 정리하여 컴퓨터로 치다보면 누구의 지적대로 오타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알이 핑핑도는데.. 매호마다 조금씩의 변화를 주기위해 무진애를 써도 나와보면 똑같은 것 같고, 어쨌든 꾸준히 발간할 수만 있어도 좋겠다.

(정은)

제목: 함께 가는 길 11월호

발행인: 최 현 숙

편집인: 정희연, 이애용, 이정희, 서정은

발행일: 1992년 11월 18일

발행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838-3296